

JBL

8 YEARS POWERING VOICES



목차

06

NEAL POGUE

아웃캐스트(Outkast)의 'Player's Ball', TLC의 'Waterfalls',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 (Tyler, The Creator)의 'Igor'를 들어봤다면, 이미 닐 포그(NEAL POGUE)의 작업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08

사운드가 자유를 얻은 순간

JBL의 전설적인 인물 마크 갠더(Mark Gander)가 Cabaret 시리즈가 어떻게 프로페셔널 포터블 스피커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는지 이야기합니다.

10

투어 현장의 JBL

세상을 감동시킨 순간들.

14

플레이백 갤러리

JBL의 아이콘들.

16

KISSA BARS

일본에서 뉴욕까지.

18

데시벨의 역사

시대를 관통한 JBL의 혁신.

20

FRANK FILIPETTI

한 스튜디오 개척자가 들려주는 '감정을 녹음하는 기술'.

22

모든 방향에서 밀려오는 몰입감

JBL이 공간 음향의 경계를 넓혀가는 방식.

8

YEARS
POWERING
VOICES

24

사운드가 형태를 갖게 된 이야기

그리고 들리는 로고.

26

RAUL GONZALEZ

현장을 누빈 25년: 과학, 사운드, 그리고 영혼.

28

시네마의 사운드

영화 사운드의 역사를 바꾼 유산.

30

무대를 위해 설계되다

상징적인 프로젝션을 통해 돌아보는 시각적 여정.

32

ICONICITIES

런던에서 바티칸까지 이어지는 사운드 여정.

36

한계를 뛰어넘는다

극한의 스트레스에서 독특하게 검증된 사운드.

38

CHRIS HAGEN

사람을 움직이는 사운드를 만드는 일.

40

브랜드 카 오디오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

42

CHARLES MURDOCH

미래를 위해 JBL 역사를 집요하게 다시 세우다.

44

GIRLS MAKE BEATS

음악의 미래를 다시 쓰다.

46

미래를 위한 사운드트랙

다음 세대 아티스트를 만들어가다.

48

1946년부터 볼륨을 높여온 역사

JBL의 빈티지 광고를 돌아보다.

50

집에서 즐기는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볼 볼인 JBL의 럭셔리 사운드 혁명.

52

듣는 즐거움을 위해 디자인되고 빚어지다

사운드의 형태.

54

ARMIN PROMMERSBERGER

사운드의 새로운 세계.



“톤, 연주감, 내구성
모든 면에서의
거대한 도약.”
— 폴 스탠리(PAUL STANLEY)

머리말 PAUL STANLEY



PAUL STANLEY

안녕하세요 음악 팬 여러분,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저는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평생을 보내며 음악과 함께 살아왔기에, 한 음 한 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팬들 앞에서 조명을 받으며 공연할 때든, 스튜디오에서 혼자 트랙 작업에 몰두할 때든, 사운드는 반드시 정확해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음악은 단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곧 저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JBL을 선택해 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960년대 후반 뉴욕의 일렉트릭 레이디 스튜디오(Electric Lady Studios)에서 제 음악과 제가 존경하던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JBL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그 사운드는 제가 다른 모든 사운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JBL은 무대에서,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집에서까지 제 창작 과정의 일부가 되어 왔습니다.

올해 JBL은 사운드를 만들고 세상이 음악을 듣는 방식을 바꾼 80년의 역사를 기념합니다. 80년에 걸친 혁신은 저와 마찬가지로 사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정표가 아닙니다. 사운드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선구자들이 함께 쌓아 올린 유산입니다. 그들이 다음에는 무엇을 해낼까요? 저도 여러분만큼이나 기대됩니다. 하지만 JBL이라면 분명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JBL에 찬사를 보냅니다. 오직 JBL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악을 계속 살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코딩 아티스트
KISS 공동 창립자

POGUE NEAL POGUE NEAL POGUE NEAL POGUE NEAL POGUE NEAL POGUE

믹싱의 거장, 시대를 초월한 사운드

아웃캐스트(Outkast)의 ‘Player’s Ball’, TLC의 ‘Waterfalls’,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의 ‘Igor’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미 닐 포그(Neal Pogue)의 작업을 알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뜻밖의 한 크리스마스 트랙이 믹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커리어 중 하나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90년대 초, 아웃캐스트(Outkast)는 LaFace Records의 크리스마스 컴필레이션 앨범을 위해 크리스마스 곡을 녹음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블 측은 그 곡의 그루브를 듣고, 단순한 시즌송으로 끝내기에는 더 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이때 프로듀서 닐 포그(Neal Pogue)가 나섰습니다. 곡을 리믹스해 독립 싱글로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Player’s Ball’. 더 이상 크리스마스 노래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평기하면서도 예상 밖의 매력을 지닌 이 곡은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포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레이블에서 ‘이건 꼭 싱글이어야 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Pro Tools 같은 프로그램은 없었고 테이프 녹음 시대였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담긴 부분을 직접 테이프에서 잘라내고, 새로 녹음한 보컬이 원곡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도록 하나하나 손으로 편집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곡은 골드 인증을 받았고 빌보드 핫 랩 송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포그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호기심이 빚어낸 커리어

포그는 처음부터 믹싱 엔지니어가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뉴저지주 로젤(Roselle)에서 자란 그는 모타운, 록, 펑크, 심지어 새미 데이비스 주니어(Sammy Davis J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에 둘러싸여 성장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트럼펫을 연주했고, 이후 드럼으로 전향했으며, 꿈을 좇아 서부로 떠나기 전까지 지역 밴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저는 밴드와 함께 투어를 돌겠다는 생각으로 LA에 왔어요. 하지만 그건 잘 풀리지 않았죠.

그러다 엔지니어링 스쿨 광고를 보고 ‘한 번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 선택은 잘 맞았습니다. Sound Master Recording에서 공부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몇몇 초기 일자리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랜디 잭슨(Randy Jackson, The Jacksons)의 개인 홈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믹싱 중심의 스튜디오인 Larrabee Sound Studios에서 LA 기반의 레코딩 및 사운드 엔지니어인 타비 모트(Taavi Mote), 앨런 메이어슨(Alan Meyerson), 키스 코언(Keith Cohen) 같은 거장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1년 반 만에 그는 절고, 검증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갈망이 큰 상태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애틀랜타 사운드를 만든다

포그는 1990년, MCA 레코드의 전설적인 A&R 담당자 루이 실라스 주니어(Louis Silas Jr.)의 초청으로 당시 음악계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이었던 바비 브라운(Bobby Brown)과 함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뒤 바비는 포그에게 몇 달 동안 애틀랜타에 와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포그는 6개월 정도 머무를 계획이었지만, 결국 12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애틀랜타는 막 들쭉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L.A., Babyface, 그리고 Cameo가 있었죠. 모든 것이 신선했고,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그 도시는 곧 힙합, 소울, 그리고 남부 정체성이 결합된 세계적인 음악 수도로 성장하기 직전의 시점이었습니다. 포그는 곧 프로덕션 듀오 오거나이즈드 노이즈(Organized Noize)와 연결되었고, TLC, 어셔(Usher), 토니 브랙스톤(Toni Braxton), 그리고 아웃캐스트(Outkast)의 레코딩과 믹싱을 맡으며

한 세대의 사운드를 정의하는 데 일조하게 됩니다.

포그의 역할은 단지 기술적인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운드를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Get Up, Get Out’ 같은 트랙에서는 테이프를 직접 편집해 전체 벌스를 다시 배열했고, 여러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 붙여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것처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직감에 의존한 작업이자, 아날로그 시대만의 장인 정신이 담긴 예술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JBL 스튜디오 모니터였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JBL에 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JBL 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구 데미언(Damien)이 708P를 한 번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앉아서 듣는데 ‘서브우퍼는 어디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운드가 전부 그 스피커에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제 그는 JBL 없이는 믹싱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집 스튜디오에서는 708P를 사용하고, 외부 스튜디오에서는 705P를 니어필드로 씁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제 기준이 되어 준 스피커예요. 선명하고, 따뜻하고, 진실을 들려줍니다. 이 스피커에서 믹스가 잘 들리면, 어디서 들어도 좋게 들린다는 걸 알아요.”

JBL은 단순한 브랜드 선택을 넘어 포그의 창작 DNA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믹싱 속 철학

포그에게 믹싱은 밸런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곧 신뢰입니다.

“저는 늘 ‘아티스트를 지키고, 아티스트를 위해 일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빛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함은 경험에서 쌓인 직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는 아닙니다. “믹스를 영원히 수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손을 놓고 자신의 감각을 믿어야 합니다. JBL 모니터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매번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요.”

움직이는 유산

오늘날에도 포그는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 도자 캣(Doja Cat), 켈라니(Kehlani), 스티브 레이시(Steve Lacy) 같은 비저너리들과 작업하며 음악계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믹스는 유행을 좇지 않습니다. 대신 아티스트가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저는 항상 귀를 믿으라고 말해요. 제 모토는 ‘귀로 세상을 보라(See With Your Ears)’입니다. 그리고 완벽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죠. 완벽이란 대체 뭘까요? 때로는 실수 안에 마법이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여전히 JBL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는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한 믹스를 좇고 있어요.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든 말이죠. 하지만 그걸 찾는 데 도움을 줄 올바른 스피커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포그가 신뢰하는 JBL 모니터와 함께



닐 포그: 커리어 한눈에 보기

믹싱의 거장

그래미 7관왕을 기록한 닐 포그는 힙합, R&B, 팝, 록, 펑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잘 알려진 수상 경력의 믹사이자 프로듀서, 엔지니어이다.

아웃캐스트와 함께한 도약

2003년 아웃캐스트(Outkast)의 Speakerboxxx/The Love Below를 믹싱하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이 앨범은 그래미 ‘올해의 앨범’을 수상. 이들의 대표 싱글 ‘Hey Ya!’ 역시 그의 믹싱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상징적인 협업

아웃캐스트(Outkast),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Tyler, The Creator), TLC,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 도자 캣(Doja Cat), 자넬 모네(Janelle Monáe),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등 음악사에 큰 영향을 남긴 수많은 아티스트와 작업했다.

그래미 수상 경력

아웃캐스트(Outkast)와의 수상 외에도 총 11회 노미네이트되어 7회의 그래미를 수상했으며, 빅토리아 모네(Victoria Monét)의 Jaguar II로 2024년 ‘최우수 엔지니어드 앨범’ 부문 수상 경력을 보유했다.

영혼이 담긴 사운드

포그는 뛰어난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자신이 참여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따뜻한, 깊이감, 감정적 타격감을 불어넣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사운드가 자유를 얻은 순간

1979년 JBL CABARET 시리즈 출시가 프로페셔널
포터블 스피커 카테고리를 탄생시킨 방식

포터블 PA는 우리가 음악을 듣는 장소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운드를 세상 밖으로 풀어낸 선구자이자, 포터블 PA의
대부를 만나봅시다.

모든 것은 마크 갠더(Mark Gander)의
한 가지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위대한 프로페셔널 사운드가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작은 씨앗은 결국 사운드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상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들릴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끈 비저너리이자
원동력은 바로 엔지니어이자 전도사, 그리고 JBL이 프로페셔널 포터를
사운드 세계에서 성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조용한 혁명가, 갠더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사운드 시스템이 트럭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가기를 바랐어요.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있다면, 어디에 있든 들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반항의 뿌리

갠더는 처음부터 사운드 혁명을 일으키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기공학을
공부했지만 로큰롤과 함께 자란 그는 무대 자체를 사랑했습니다. 직접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공연을 살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까지 1년간 전국을 돌며 사운드 엔지니어이자
믹서로 일했어요." 그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업계의 한계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당시에는 트럭 한 대 분량의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자신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1970년대 중반 JBL에 합류했을 때, 그는 연구실에만 머무는 엔지니어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갇혀 지내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로드
크루와 뮤지션들, 그리고 작은 공연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현장 스태프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죠. 방법이 일어나는 곳도, 문제가 존재하는 곳도 바로
거기였으니까요."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 그리고 현장에서 비롯된 호기심은 결국
'포터블 PA'라 불리게 되는 개념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사용이
쉬우며, 프로페셔널급 사운드를 제공하는 시스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플라이트 케이스 안의 자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카바레 시리즈는 단순한 또 하나의 제품군이
아니었습니다. 프로페셔널 사운드가 무대에서 내려와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는 라이브 음향을 구현하기 위해 트럭 한가득 장비를 싣고 전문 크루들을
대동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갠더는 누구나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독립형
프로페셔널급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포터블 프로 사운드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뮤지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죠."

카바레 시리즈는 사운드의 주도권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제 좋은 사운드는 예산이
있는 공연장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와 목적이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거리의 모퉁이, 뒷마당 공연, 가족 모임, 하우스 파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갠더는 이를 "사운드의 대중화"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꿈을 품은 가수가 마이크
하나만 빌리면 헤드라이너와 똑같이 선명한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게 된 거죠."

개척자의 현장성

다른 엔지니어들이 특허를 쫓을 때, 갠더는 대화를
쫓았습니다. "저는 LA 포럼(Forum)이나 밴드들이
장비를 실어 나르는 장소에 직접 갔어요. 인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였죠.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어떤 점이
욕을 먹는지, 무엇이 사랑받는지를 보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현장과 공장을 잇는 피드백 루프는
JBL의 비밀 무기가 되었습니다. 갠더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다시 가져와
기술 브리프, 제품 기획, 성능 혁신으로
바꾸어냈습니다.

바퀴 위에서 시작된 문화적 혁신

포터블 PA가 성숙해질수록
그 영향력도 확대되었습니다.
목사부터 시인, 웨딩 DJ, 청소년 활동가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선명함과 자신감,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는 존재감을 바탕으로
하나의 순간을 주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스피커는 무대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우리는 그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구를 주면 됐죠."

그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EQ 세팅을 기억하지 않아요. 대신 신부가 새 남편에게 노래를 불렀고 가족
모두가 울었던 그 순간의 감정을 기억하죠."

엔지니어에서 가능성을 여는 사람으로

갠더는 카바레 시리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고, 리징
시스템을 재구성하며, 영화관에서 예배 공간에 이르기까지 JBL 혁신의 여러 세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언제나 다시 포터블 PA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날 갠더는 프로 오디오 업계에서 존경받는 이름이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무엇보다 먼저 '사용자'로 여깁니다. "저는 항상 엔지니어의 부츠에는 진흙이 묻어
있어야 한다고 말해왔어요. 가까이서 보지 못한 문제는 고칠 수 없으니까요."

모든 가사 속에 남은 유산

오늘날 포터블 PA는 문화 속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집 앞마당의 작은 콘서트,
아구장, 그리고 꿈을 품은 친구들 몇 명이 꾸린 루프탑 공연에서도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갠더의 비전은 직접 장비를 들고나온 거리로 나선 버스커 한 명 한 명의 모습 속에
살아 있습니다. 무선 마이크로 훈련 지시를 외치는 코치의 목소리 속에도, 그리고
"와, 정말 콘서트에서 듣는 것 같네"라고 말하는 모든 부모의 감탄 속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어 현장의 JBL

세상을 감동시킨 순간들



WOODSTOCK

JBL 스피커 컴포넌트는 역사상 첫 우드스톡(WOODSTOCK) 페스티벌에서 전설적인 사운드를 선사했습니다.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제니스 조플린(Janis Joplin), 더 후(The Who)의 공연과 함께, 우드스톡은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1969



GRATEFUL DEAD AND THE WALL OF SOUND

JBL은 그레이프톨 데드(Grateful Dead)를 위해 '월 오브 사운드(The Wall of Sound)'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당시 이 시스템은 왜곡 없는 최대 규모의 콘서트 시스템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70



CAL JAM FESTIVAL

JBL은 당시까지 구축된 사운드 시스템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시스템의 일부를 담당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54,000와트의 출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행사는 대중문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40만 명의 록 음악 팬들이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 Fire), 딥 퍼플(Deep Purple), 이글스(The Eagles)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1974



US FESTIVAL

JBL의 사운드는 애플(Apple)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이 주최한 혁신적인 행사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기술과 록 음악을 결합했으며, 미국-소련 우주 브리지(US-Soviet Space Bridge)가 처음으로 구현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토크 헤즈(The Talking Heads), 더 폴리스(The Police),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등 당시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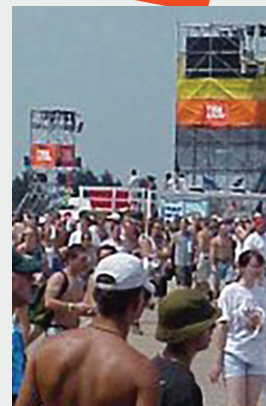


US LIVE AID BENEFIT CONCERT

JBL 시스템은 필라델피아의 존 F. 케네디 스타디움(John F. Kennedy Stadium)에서 열린 라이브 에이드(LIVE AID) 현장 사운드를 담당했습니다. 이곳에는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자선 콘서트 가운데 하나를 보기 위해 9만 명의 관객이 모였습니다. 에티오피아 기근 구호 기금 마련을 위해 수많은 스타들이 무대에 오른 가운데, JBL 시스템은 모든 음이 선명함과 파워, 그리고 메시지를 담아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85



WOODSTOCK '99

1969년 첫 우드스톡(Woodstock) 페스티벌에 함께했던 JBL은 30년 뒤 공식 스폰서로 다시 우드스톡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메탈리카(Metallica),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 콘(Korn) 등이 무대에 오른 열정적인 주말을 함께했습니다.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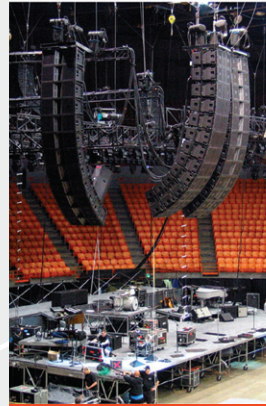


PRINCE SUPER BOWL - HALFTIME SHOW -

JBL은 프린스(Prince),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샤키라(Shakira)와 같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주요 공연에 압도적인 사운드를 제공하며, 하프타임 쇼를 챔피언십 경기 자체만큼이나 짜릿한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2007년 프린스의 잊을 수 없는 공연 이후, JBL은 그 뒤를 이은 대부분의 상징적인 하프타임 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2002+



BRUCE SPRINGSTEEN - THE RISING TOUR -

9·11 테러 이후,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과 E 스트리트 밴드(E Street Band)는 더 라이징 투어(The Rising Tour)를 시작했습니다. 17개국에서 총 120회에 걸쳐 진행된 이 투어는 JBL 오디오 시스템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공연장을 순회하며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ERIC CLAPTON - ROYAL ALBERT HALL -

에릭 클랩튼(Eric Clapton)은 런던의 상징적인 공연장인 로열 앨버트 홀(Royal Albert Hall)에서 7회의 콘서트를 개최하며 JBL의 라인 어레이(line array)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복잡한 음향 환경으로 유명한 이 공연장은 JBL의 정밀한 음향 엔지니어링 기술 덕분에 모든 좌석에 균일하고 고품질의 사운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ROCK IN RIO FESTIVAL

JBL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록 인 리우(Rock in Rio) 음악 페스티벌의 사운드를 담당했으며, 이후 브라질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페스티벌에도 함께했습니다.



THE SUMMER OLYMPICS - BEIJING -

JBL은 베이징 하계 올림픽(Beijing Summer Olympics)에서 여러 경기장에 강력하면서도 맑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명장면들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열린 하계 동계 올림픽에서도 지속적으로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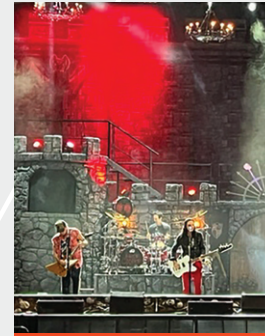
LENNY KRAVITZ, - ALWAYS ON THE RUN TOUR -

JBL은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와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씬 없는 글로벌 일정을 지원했습니다. 록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퍼포머 중 한 명이자 그래미 4회 수상자인 그의 무대를 함께했죠.



TOMORROWLAND FESTIVAL

JBL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 중 하나인 투모로우랜드(Tomorrowland)와 협력했습니다. 유럽, 중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팬들에게 강력한 사운드와 몰입감 있는 경험을 선사했으며, 강력한 라이브 오디오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음악 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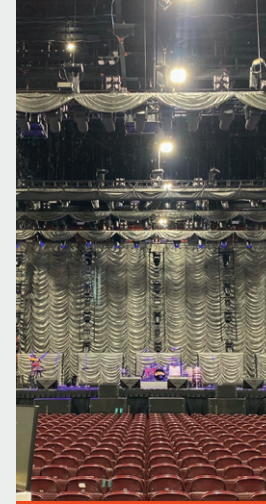
ALICE COOPER - US TOUR -

앨리스 쿠퍼(Alice Cooper)는 2022년 미국 투어에서 JBL을 선택해 특유의 시그니처 쇼크 록(Shock Rock) 무대를 뼈를 울리는 듯한 선명도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2025년 최신 투어에서도 다시 JBL VTX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IBIZA ROCKS

이비자 록스(Ibiza Rocks)는 최근 노후화된 기존 사운드 시스템을 JBL Professional 라우드스피커로 구성된 통합 라이브 오디오 솔루션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소음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HEART - ROYAL FLUSH TOUR -

JBL은 밴드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소화할 수 있는 사운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강력한 록 사운드부터 섬세한 보컬 중심의 순간까지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공연장과 극장 전반에 걸쳐 일관된 사운드를 제공했습니다.



NEW YEAR'S, - NYC'S TIMES SQUARE BALL DROP -

오랜 기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뉴욕 타임 스퀘어에 모여 왔습니다. 이들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JBL 라우드스피커를 통해 공연과 카운트다운을 즐기며 새해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2002/3

2004

2006

2008

2012

2018

2022

2024

2025

2026

플레이백 갤러리

80년 동안 JBL은 영화관의 황금기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무대, 레코딩 스튜디오, 그리고 거실에 이르기까지 세상이 음악을 듣는 방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JBL Playback Gallery가 그 유산을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이 전시는 80년에 걸친 사운드 혁신의 여정을 따라가며, 시대를 정의하고, 문화적 순간을 이끌고, 오디오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던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이제는 단지 일부 하이라이트에 불과합니다. 올해 전 세계를 순회하는 Playback Gallery에서 이 상징적인 제품들과 더 많은 아이콘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극장의 사운드를 바꾼 초기 드라이버부터 오늘날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신뢰하는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각 제품은 사운드가 어떻게 우리를 움직여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은 투어 중인 대표 아이콘들입니다.

1940s



D130 드라이버

1946년 JBL 설립 이후 출시된 최초의 대량생산 라우드스피커 드라이버. 뛰어난 선명도와 효율성으로 사랑받았으며, 영화관, 하이파이 시스템, 기타 앰프, 그리고 Grateful Dead의 전설적인 'Wall of Sound'를 포함한 상징적 콘서트 사운드 시스템에 사용되었다.

1950s

PARAGON DD44000

1957년 출시된 JBL Paragon은 세계 최초의 가정용 스테레오 라우드스피커. 폭이 거의 9 피트에 달하는 이 제품은 조형미와 음향 혁신을 결합했으며, 곡선형 확산 패널을 통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JBL 역사상 가장 상징적이며 수집 가치가 높은 스피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1960s



THE C38 BARON

C38 Baron은 JBL의 고성능 드라이버를 보다 콤팩트하고 세련된 인클로저에 담아 가정용으로 선보인 모델. 1950~60년대 큰 인기를 얻었으며, 오디오 애호가들에게 거실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스튜디오급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JBL은 소비자 하이파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했다.

4320 스튜디오 모니터

1960년대 초 개발된 JBL 4320은 현대적 레코딩 컨트롤룸을 위해 제작된 초창기 라우드스피커 중 하나로, 강력한 15인치 드라이버와 혼 로드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통해 엔지니어들에게 새로운 수준의 정확도와 출력 성능을 제공하며 프로페셔널 스튜디오 모니터링의 기준을 세웠다.



1970s



L100-A CENTURY

1970년 처음 출시된 L100 Century는 JBL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라우드스피커 중 하나. 시그니처인 쿼드레스 폼 그릴, 화이트 콘 우퍼, 질넷 베니어 캐비닛을 갖춘 이 제품은 한 시대의 홈 하이파이를 정의했다. 오늘날 새롭게 재해석된 L100 Classic은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과 현대 음향 공학을 결합해 이 전설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4310 스튜디오 모니터

JBL 4310은 니어필드 모니터링 개념을 개척한 제품으로, 엔지니어들이 콘솔 가까이에서 통의 영향은 최소화한 채 더 많은 디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후속 모델인 4311은 더욱 널리 사용되었고, 이 계열 모니터는 이후 Michael Jackson, Eagles 등과 연결되는 시대의 많은 영향력 있는 레코딩 작업에 활용되었다.



1980s



DD55000

'에베레스트(Everest)'로도 알려진 JBL DD55000은 1980년대에 타협 없는 플래그십 스피커로 등장, 압도적인 디자인과 첨단 혼 기술을 통해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다이내믹스를 구현하며, JBL이 가장용 하이엔드 오디오 혁신을 선도하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CABARET 4623

JBL의 혁신적인 Cabaret Series 포터블 음향 시스템 라인업의 일부. 내구성과 높은 출력 성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어, 1970~1980년대 투어 뮤지션과 DJ, 라이브 공연 현장에 휴대성이 뛰어난 패키지로 프로페셔널 오디오 성능을 제공했다.



1990s



EON POWER15

영향력 있는 JBL EON 파워드 라우드스피커 제품군의 첫 모델. 가볍고 독립형 구조를 갖춘 이 제품은 뮤지션, 프레젠테이션, 이벤트 프로듀서들에게 프로페셔널 PA 시스템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며 포터블 사운드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그 성공은 오늘날까지도 인기 있는 전체 파워드 스피커 카테고리를 탄생시켰다.

250Ti

1980년대에 선보인 JBL 250Ti는 첨단 드라이버 기술과 인상적인 삼엽디자인을 결합한 플래그십 플로어스탠딩 라우드스피커. 티타늄 돔 고주파 드라이버와 저명한 디자이너 그레그 팀버스(Greg Timbers)가 설계한 조정적 캐비닛을 통해 강력하고 정교하면서도 존재감이 뚜렷한 사운드를 구현했다.



2000s



K2 S9800

K2 S9800은 JBL의 전설적인 컴프레션 드라이버 유산이 진화한 결과물. Paragon, Hartsfield, Project Everest 같은 아이콘에서 영감을 받아 한때 도달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준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정교하게 구현했다. 21세기 엔지니어링과 오랜 전통을 결합해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진정한 종합체로 자리했다.

VRX928LA

2007년 출시된 VRX Series는 JBL의 라인 어레이 기술을 더 작은 공연장까지 확장한 제품군. 콤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나며 확장 가능한 설계를 통해 투어 공연, 예배 공간, 고정 설치 환경에서도 콘서트급 사운드를 제공했다. VRX는 확장 가능한 프로페셔널 솔루션에 대한 JBL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2010s



DD67000 EVEREST

가용한 최첨단 기술과 최고급 부품을 적용한 3웨이 시스템으로, JBL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가장 선명받는 스피커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된다.

EON ONE

JBL 최초의 프로페셔널 올인원 PA 시스템으로, 믹싱, 앰프, 라우드스피커를 하나로 통합한 제품. JBL 사운드와 하만 프로 오디오 브랜드 기술을 결합해 현대 퍼포머와 발표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휴대성을 제시했다.



2020s

SUMMIT MAKALU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의 이름을 딴 Summit Makalu는 JBL Summit Series의 3웨이 12인치 플로어스탠딩 레퍼런스 라우드스피커이자 미드레인지 시스템을 대표하는 모델. 강력하고 정교한 성능으로 그 이름에 걸맞은 정상급 경험을 제공한다.



PARTYBOX 720

JBL의 현대적인 PartyBox 라인업에 속한 PartyBox 720은 대형 모임과 라이브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설계된 강력한 JBL Original Pro Sound를 제공. 깊은 베이스, 역동적인 라이트 쇼, 견고한 휴대형 디자인을 결합해 음악이 있는 어디서든 파티와 이벤트를 축하의 순간에 클럽 수준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JBL FLIP 7

JBL Flip 7은 JBL의 인기 Flip Series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계보를 이어가는 모델. 작지만 강력한 이 제품은 이동 중에도 강력한 JBL Original Pro Sound와 탄탄한 저음을 제공하며, 견고하고 방수 설계를 통해 야외 활동부터 일상 청취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JBL TOUR ONE M3 TX

JBL Tour One M3 TX는 JBL 프리미엄 오버이어 헤드폰의 최신 세대를 대표한다. 첨단 어댑티브 노이즈 캔슬링, 고효율 오디오, 전용 Smart TX 오디오 트랜스미터를 결합해 여행, 업무, 일상 청취 전반에서 몰입감 있는 고품질 사운드와 매끄러운 연결성을 제공한다.



SRX922

2026년 출시된 SRX922는 2022년 선보인 SRX Series를 최신으로 확장한 모델로, 설치 유연성, 보이스, 앰프 구동, 디지털 신호 처리의 강력한 조합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BARBERS KISSA BARBERS KISSA BARBERS

다, 더 많은 카페가 이어졌습니다. 음악과 공간, 사운드 시스템을 존중할 때 청취 경험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일본에서 뉴욕, 그리고 자카르타까지

뉴욕 트라이베카 워커 스트리트에 자리한 올 블루스(All Blues)에서는 매일 밤 단 한 번뿐인 플레이리스트가 펼쳐집니다. 턴테이블 뒤에서 실시간으로 완성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음악이 스스로 말하게 두는 것입니다. 일본 출신의 오랜 음악 애호가인 이완 아르잔토는 재즈와 소울, 영화 사운드트랙,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명곡 등 장르를 넘나드는 바이닐 셋을 매일 새롭게 큐레이션합니다. 모든 음악은 희귀한 빈티지 JBL 스피커를 통해 재생됩니다.

설립자 유지 후쿠시마(Yuji Fukushima)는 말합니다. “저처럼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일상에서 음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뮤지쿠아리움(musiquarium)’이라고 부릅니다. 음악 애호가들이 하이엔드 오디오로 몇 시간이고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죠.”

이곳에는 음악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습니다. 음악 소리가 대화 소리에 덮이는 일도 없습니다. 오직 듣는 행위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공간과 하이파이 사운드만 존재합니다. 후쿠시마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곡도 이 시스템으로 들으면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는 손님들이 있습니다”라고 전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완 아르잔토(Iwan Arjanto)는 키사 바의 핵심이 ‘의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음악은 세심하게 재생되고, 시스템은 각 곡이 지닌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드러내도록 구성됩니다. 모든 트랙은 바로 그 순간과 공간, 그곳의 청취자를 위해 선택됩니다.”

전후 일본에서 탄생한 키사 바(Kissa bar)는 현지에서 재즈 키사텐(Jazz Kissaten)으로 불리며, 음악 감상을 사려 깊고 의도적인 의식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1950년대 등장한 이 작은 카페들은 고급 오디오 시스템과 방대한 바이닐 컬렉션을 갖추고, 조용히 앉아 재즈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본 전역에 600곳이 넘는 키사 바가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적인 키사 문화는 한때 위축됐지만 그 영향력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키사의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리스닝 바가 세계 여러 도시에 문을 열어 새로운 세대에게 같은 특별한 경험을 제안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방해받지 않은 채 음악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장소: All Blues, NYC



장소: All Blues, NYC

“그 뒤로
더 많은 카페가
이어졌습니다.
음악과 공간,
사운드 시스템을
존중할 때
청취 경험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복원된 JBL 4355 스피커와 함께한 이완 아르잔토

아르잔토의 관심은 클래식 JBL 시스템을 소개한 오래된 오디오 잡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영감을 받은 아르잔토는 드라이버와 혼, 앰프, 재활용 부품을 하나씩 모아 시스템을 조립하고 제작 기술을 익혔습니다. 작업 과정은 같은 열정을 지닌 온라인 커뮤니티와 꾸준히 공유했습니다.

“모든 것은 음악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깊은 오디오 취미로 이어졌죠. 어떤 사람들은 이를 오디오필리아(audiophilia)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쌓이면서 작업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오래된 모니터를 복원하고 습기로 손상된 캐비닛을 다시 제작하는가 하면, 어분의 부품과 JBL의 오리지널 설계도를 활용해 시스템 전체를 처음부터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인도네시아 서자바 반도의 한 카페에 JBL L100을 설치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르잔토는 “많은 분이 곧바로 그 사운드를 좋아했습니다. 그 뒤로 더 많은 카페가 이어졌죠. 음악과 공간, 사운드 시스템을 존중할 때 청취 경험이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라고 회상합니다.

오늘날 아르잔토가 복원하거나 맞춤 제작한 시스템은 아시아 전역의 카페와 바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도 놀랍지만, 아르잔토는 진정한 마법이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그 장치가 만들어내는 몰입형 청취 경험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키사 문화는 한 공간, 한 장의 레코드, 한 명의 청취자를 통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쿄와 자카르타, 뉴욕 어디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든 경험의 본질은 같습니다. 음악을 그저 듣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음악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테시벨의 역사

시대를 관통한 JBL의 혁신



1940s

1946년 JBL 설립 및 D130 드라이버 출시

JBL이 개발한 첫 상용 보이스 코일을 적용하여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운드를 구현함. 이 성능에 주목한 펜더(Fender)는 1950년대부터 자사 기타 앰프에 JBL 드라이버를 채택함. JBL이 없었다면 로큰롤 사운드의 역사도 지금과는 달랐을 것으로 평가됨.



1950s

JBL, Paragon 스테레오 라우드스피커 시스템 출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스테레오 라우드스피커 시스템. 독특한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기념비적인 제품으로, JBL 스피커 시스템 중 가장 오랜 기간 생산을 기록함.



1960s

최초의 2-WAY 스튜디오 모니터 출시

음향 렌즈를 결합한 고주파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적용한 JBL 최초의 2웨이 스튜디오 모니터. 초기 모델명은 D50SMS7이었으며, 이후 JBL 4320으로 명명됨. 할리우드 캐피톨 스튜디오(Capitol Studios)의 에드 우에케(Ed Uecke)와 공동 설계한 이 모니터는 주파수 대역을 더욱 자연스럽고 개방감 있게 재생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 이후 EMI의 전 세계 스튜디오 네트워크에서 표준 모니터 스피커로 채택됨.



1970s

JBL 4310 스튜디오 모니터 출시

1968년 처음 출시되어 한 세대를 정의하는 사운드의 기반을 마련함. 그 영향력은 1970년 CES에서 소개된 L100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1974년 4311 모델로 진화함. 특유의 화이트 콘 우퍼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형 레코딩 모니터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1970년대 사운드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함.



1980s

티타늄 압축 드라이버 다이어프램 도입

고주파 성능 및 출력 효율 향상을 위해 도입됨. 초기 THX 인증 영화관에 널리 설치된 고출력 스크린 스피커인 JBL 4675 시네마 시스템에 적용됨.



1990s

JBL EON 스피커 시스템 도입

사운드 업계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스피커를 선보임. 독자적인 네오디뮴 디퍼렌셜 드라이브(neodymium differential drive) 기술을 통해 당시 경쟁 제품보다 무게를 20파운드(약 9kg) 줄임. 견고한 설계와 고품질 사운드를 결합해 프로페셔널 공연 장비의 이동성을 크게 높임.



2000s

JBL, 오디오 독(dock) 시장을 선도

JBL은 아이팟(iPod)용 오디오 독을 선도적으로 선보임. 이를 통해 휴대용 오디오라는 개념이 대중 소비자 시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데 기여함.



2010s

JBL FLIP 출시

JBL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카테고리에 플립(Flip) 시리즈를 선보임. 이후 세대를 거듭한 플립 시리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휴대용 스피커 라인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함.



2020s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최초의 무선 이어폰

JBL Tour Pro 2 완전 무선 이어폰은 충전 케이스에 업계 최초로 1.45인치 LED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함.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음악 재생, ANC 및 주변 소리 듣기 모드, EQ 설정, 알림 확인, 이어버드 찾기 등을 제어할 수 있음. 배경화면과 화면 밝기도 맞춤 설정할 수 있음.



2020s

Toyota Tacoma, JBL FLEX 탑재

토요타가 차량 오디오 시스템과 매끄럽게 통합된 탈착식 블루투스 스피커인 'JBL 플렉스'를 선보임. 타코마(Tacoma) 및 포러너(4Runner) 차량에서 센터 채널 역할을 수행하며 강력한 오디오 경험을 선사함. 특허받은 디자인과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특징으로 하는 토요타 최초의 시도임.



2020s

JBL AI 사운드 부스트 도입

JBL은 여러 휴대용 스피커에 AI 사운드 부스트(AI Sound Boost)를 적용함. 이를 통해 기술 중심 오디오 혁신의 기준을 다시 한번 높임.



2020s

지속 가능한 사운드의 새로운 시대 개막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과 환경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한 JBL 최초의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선보임.



FRANK FILIPETTI

감정을 녹음하는 기술

아무도 스튜디오를 의식하지 않는 순간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 그레미 7회 수상 프로듀서의 반세기 커리어를 들여다봅니다.

40년 넘게 콘솔 뒤를 지켜온 프랭크 필리페티(Frank Filipetti)는 7개의 그레미 트로피와 칼리 사이먼(Carly Simon)부터 콘(Korn), 브로드웨이 뮤지컬 위키드(Wicked)의 오리지널 캐스트 레코딩, 오페라에 이르는 방대한 디스코그래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세션의 완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종이 위에서 아무리 잘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음악은 가슴속 무언가를 느끼게 해야 하거든요.”

이 믿음은 그의 모든 작업을 이끌어왔고, 그를 음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엔지니어 중 한 명으로 만든 핵심이기도 합니다. 필리페티는 곡을 녹음하기보다 순간을 포착합니다. 레코딩 프로듀서이자 오디오 엔지니어인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은, 아티스트가 스튜디오를 잊고 오롯이 연주에 몰입하는 순간 피어나는 섬세한 감정의 불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할 수 없는 순간

그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포리너(Foreigner)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녹음 막바지 단계에서, 인근 스튜디오에서 작업 중이던 제니퍼 홀리데이(Jennifer Holliday)가 우연히 들려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트랙에 흐르자, 그녀는 곡에 밴 가스펠의 정서와 루 그램(Lou Gramm)의 목소리에 담긴 애절함을 즉각 느꼈습니다. 분석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필리페티는 그녀를 별도 부스에 세워 파트를 짜는 대신, 그 생생한 순간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루와 제니퍼는 컨트롤룸에서 서로 마주 본 채 하나의 마이크를 나눠 쓰며 라이브로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테이크나 테크닉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반응하고, 영혼으로 대답하고 있었죠. 그런 건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래서 내가 이 일을 평생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장면을 보며 프랭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벽도, 과도한 분석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개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흥적인 교감의 상당 부분이 최종 레코딩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완성된 곡을 들 때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편지, 편지인, 보정이 들어갔는지 거의 알지 못해요. 하지만 감정이 그 방 안에서 라이브로 포착되면, 기술적 정교함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진실이 실리게 됩니다.”

장르를 넘나드는 직관

이 직관적인 접근은 필리페티의 커리어 전체를 규정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어떻게 록에서 팝, 오페라까지 넘나드냐고 묻습니다. 사실 저는 장르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의도를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진실하게 느껴지는가ですよ.”

그는 특정 장르의 사운드를 좇지 않고 아티스트의 의도를 좇기에 어떤 장르에서도 자연스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의 절제된 친밀함, 엘튼 존(Elton John)의 웅장함, 브로드웨이 뮤지컬 더 북 오브 몰몬(The Book of Mormon)의 날카로운 정밀함을 담아낼 때도 그의 질문은 같습니다. 아티스트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그리고 그 메시지는 어떤 감정으로 전달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손길을 지키는 강한 옹호자

관점은 왜 필리페티가 음악에서 인간의 손길을 강하게 옹호하는 인물이 되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그는 기술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디지털 레코딩과 서라운드 사운드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던 엔지니어 중 한 사람이었고, 오늘날에도 더 선명하게 듣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도구가 있다면 주저 없이 도입합니다. 그가 경계하는 것은 기술이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클릭 트랙에 고정되고, 박자에 완벽히 맞춰 정렬되면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진짜 뮤지션은 속도를 올리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어떤 음에 몸을 싣기도 하죠. 감정은 바로 거기에 살아 있습니다.”

과도하게 쿼타이즈된 리듬과 완벽하게 튜닝된 보컬은 이런 미세한 인간적 흔들림을 평평하게 만들고, 결국 퍼포먼스에서 감정의 곡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을지 몰라도, 더 이상 숨 쉬지 않게 됩니다.

필리페티에게 Auto-Tune 같은 도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사용될 때는 위험합니다. “Auto-Tune은 당신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추정할 뿐이죠. 그리고 그걸 계속 두면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운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건 꽤 두려운 지점입니다.”

무심코 사용되면, 그것은 청취자들이 익숙함을 감정으로 착각하고, 비슷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킵니다.

기술을 쓰되, 영혼은 잃지 않기

여기서 필리페티와 기술의 관계는 보다 미묘해집니다. 그는 세션이 시작되면 장비는 사라져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장비는 직관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에게 JBL 스튜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을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음악을 느껴야지, 스피커와 싸우고 싶지 않아요. 장비가 의식되기 시작했다면, 이미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시스템은 사라지고, 퍼포먼스만 남아야 해요.”

저역이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는 까다로운 룸에서 Korn의 세션을 진행하던 중, 그는 튜닝 가능한 JBL 스튜디오 모니터 덕분에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도 음악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JBL이 M2 시스템을 선보였을 때, 필리페티는 감정을 납작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힘과 선명함, 정확도를 제공하는 이 모니터에 매료되어 초기 도입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브랜드 충성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자신이 듣는 것이 결국 청중이 느낄 감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의 시스템은 과장도, 무덤도 없이 음악이 지닌 물리적 임팩트를 전달해야 합니다. 장비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순간, 마법은 깨집니다.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하다

완성보다 감정을 우선하는 이 철학은 필리페티가 멘토로서 수행하는 역할에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오디오 엔지니어와 프로듀서들이 기술 제조사와 협력해 레코딩의 최고 기준을 유지하는 공동체인 METalliance의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현대 오디오 엔지니어링의 선구자인 조지 마센버그(George Massenburg), TOOL부터 Prince까지 다양한 아티스트와 작업한 실비아 매시(Sylvia Massy), 그리고 그레미 역사상 가장 화려한 경력을 지닌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던 고(故) 알 슈미트(Al Schmitt)와 함께, 필리페티는 레코딩 기술의 장인 정신을 지키려는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 관심사는 향수가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필리페티는 프리셋과 자동화 속에서 자란 젊은 엔지니어들이 듣기 전에 고치는 법부터 배우고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방 안에 앉아 아티스트를 바라보고, 퍼포먼스가 공기의 밀도를 바꾸는 순간을 감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순간은 프로그램할 수 없으며, 한 번 놓치면 다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의 커리어는 직관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는 밤에는 KISS를 믹싱하고 낮에는 칼리 사이먼(Carly Simon) 작업을 하며,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의 경이로운 보컬 퍼포먼스부터 정밀함과 영혼을 동시에 요구하는 브로드웨이 캐스트 레코딩까지 자연스럽게 넘나들어 왔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공감입니다. 그는 뮤지션처럼 듣는 사람입니다.

이 공감은 그가 청취자를 생각하는 방식에도 이어집니다. 필리페티는 종종 방 안에 홀로 앉아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단 한 사람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첫마디에서 그 청취자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자문합니다. 위안, 긴장, 희망, 해방. 믹스의 모든 결정은 그 상상 속 감정 여정에서 출발합니다.

긴박감을 품은 유산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음악 제작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필리페티는 진보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표현을 돕는 역할을 해야지,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믿을 뿐입니다.

“완벽함은 이제 쉬워졌어요. 감정은 그렇지 않죠. 다음 세대가 그저 정리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법만 배운다면, 우리는 곤란해집니다. 마법은 균열 속에 살아 있으니까요.”

전 세계 스튜디오에서 거의 5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낸 끝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정리됩니다. 퍼포먼스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되, 도구가 앞서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술은 레코드를 완벽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곡이 왜 중요한지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주의 깊게 듣고, 감정을 녹음하기로 선택하는 인간의 몫입니다.



WTF Studios(코네티컷주 워터퍼드)에 위치한 프랭크의 홈 스튜디오) JBL M2 마스터 레퍼런스 모니터, 708P, 705P, 305P 장비 구성

프랭크 필리페티: 커리어 한눈에 보기

사운드와 함께한 삶

프랭크 필리페티는 7회의 그레미를 수상한 레코딩 및 믹싱 엔지니어로, 50년이 넘는 커리어 동안 록, 팝, 클래식, 브로드웨이, 영화, 오페라에 걸쳐 활동해 왔다.

초기 시절

1970년대 뉴욕 스튜디오에서 경력을 시작했으며, 뛰어난 기술력과 음악적 감수성을 겸비한 엔지니어로 명성을 쌓았다. 칼리 사이먼(Carly Simon)과의 초기 협업은 40년 넘게 이어진 창작적 파트너십의 출발점이 되었다.

대표 협업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엘튼 존(Elton John), 빌리 조엘(Billy Joel), KISS, 미트 로프(Meat Loaf), 포리너(Foreigner), 콘(Korn), 칼리 사이먼(Carly Simon) 등 폭넓은 아티스트들과 레코딩과 믹싱을 담당했다. 스타디움 록부터 친밀한 싱어송라이터 음반, 대규모 오케스트라 프로덕션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했다.

수상 및 인정

‘최우수 엔지니어드 앨범(비블랙스)’ 부문을 포함해 총 7회의 그레미를 수상했다.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의 Hourglass, October Road, Pull Over 라이브 앨범과 브로드웨이 The Color Purple 캐스트 레코딩 등이 주요 수상작에 포함되었다.

스튜디오를 넘어

Wicked, The Book of Mormon, Aida, Spamalat 등 브로드웨이 대표 캐스트 앨범의 엔지니어링을 담당했으며, 디즈니 Enchanted, 픽사 Cars, Across the Universe, August Rush 등의 영화 작업에도 참여했다. 또한 Pavarotti and Friends, 제임스 테일러(James Taylor)의 Live at the Beacon, 엘튼 존(Elton John)의 One Night Only 등 라이브 및 클래식 작업도 수행했다.

무대와 스크린, 콘서트홀 전반에 걸친 모든 작업에서 그의 초점은 변함없다. 퍼포먼스를 포착하고, 그 안의 인간적인 감각을 지켜내는 것이다. 또한 그는 레코딩 기술의 최고 기준을 보존하는 데 헌신하는 공동체인 METalliance의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현재

현재도 활발히 스튜디오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젊은 엔지니어들의 멘토 역할을 맡고 있다. 그의 초점은 변함없다. 퍼포먼스를 지키고, 직관을 신뢰하며,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다.



모든 방향에서 밀려오는 몰입감:

JBL이 공간 음향의 경계를 넓혀가는 방식

JBL 글로벌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 샤론 펑(Sharon Peng)은 몰입형 오디오를 이야기할 때 스펙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청취자에서 시작합니다.

“사운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진정한 몰입형 사운드는 단순히 귀로 듣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느끼고, 움직임을 따라가며, 우리를 이야기 한가운데로 데려갑니다.”

이처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바로 JBL의 공간 음향 작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80년간의 오디오 혁신을 바탕으로, JBL은 특정 포맷이나 유행을 좇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말 중요한 것, 즉 경험에 집중합니다.

유형어를 넘어: 몰입형 오디오란 무엇인가?

펑과 그녀의 팀에게 몰입형 오디오는 단순히 좌우, 전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 방식, 움직임, 청취 방식에 반응하는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공간 음향은 서라운드 사운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적응적이며, 감정적입니다.”

이 믿음은 연구에 기반합니다. 신경과학은 몰입형 오디오가 전통적인 스테레오보다 더 많은 뇌 영역을 자극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억력을 높이고, 감정적 임팩트를 강화하며, 심지어 공간 감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JBL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단지 성능을 위한 제품이 아니라, 지각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과 사운드의 만남: JBL 혁신 연구소 내부

JBL의 최신 공간 음향 개발은 하드웨어의 정밀성과 AI 기반 적응성의 결합 위에 서 있습니다. JBL Tour Pro 3에 적용된 Immersive JBL Spatial 360 사운드와 JBL QuantumENGINE 기반 게이밍 헤드폰이 그 대표 사례입니다. 이 기기들은 헤드 트래킹, 환경 감지, 개인 맞춤형 사운드 프로파일을 활용해 사용자의 상황에 실시간으로 적응하는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

펑은 말합니다. “우리는 ‘오디오 프레즌스(audio presence)’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 위해 지능형 사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리를 청취자 주변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환경 안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연구실에서 일상으로: 공간 음향의 생활 속 힘

몰입형 오디오는 한때 프리미엄 홈시어터나 고급 게이밍 환경에만 국한된 경험이었습니다. JBL은 이를 일상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통화 중에, 혹은 분주한 도심을 걸을 때에도 말입니다.

이처럼 몰입형 오디오를 대중화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펑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보고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참여합니다. 사운드도 그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미래의 사운드는 더 개인적이다

JBL은 미래의 오디오를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경험의 기반으로 봅니다. 펑은 그 변화를 이끌 핵심으로 AI를 꼽습니다. “지능형 오디오는 사용자가 집중해야 할 때와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주변 환경뿐 아니라 사용자의 상황과 의도에 맞춰 사운드를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왜 여전히 스토리텔링이 중요한가

모든 혁신의 데스벨 뒤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샤론 펑에게 그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헤드폰이나 스피커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영감을 주고, 움직이게 하는 경험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운드는 원래 그래야 합니다.”



JBL 글로벌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 샤론 펑



이동하며 듣는 시대: 휴대용 오디오의 미래를 만드는 기술들

스피커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사회적으로 역할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사운드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디든 음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파크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발코니에서 요리를 하며 음악을 듣고, 해변의 노을을 배경으로 사운드트랙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늘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휴대용 사운드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변화는 블루투스 혁명과 소비자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하나의 공간에 묶여 있지 않게 되면서, 새로운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운드 시스템들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JBL에서 30년간 마케팅 디렉터로 활동하다 은퇴한 크리스토퍼 드래곤(Christopher Dragon)은, JBL의 무선 전환을 이끈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서 그 순간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제 커리어 대부분 동안 사운드는 커다란 박스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제자리에 고정된 시스템들이었죠. 블루투스가 등장했을 때, 솔직히 우리가 준비됐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초기 버전은 연결도 불안정했고 소리도 평평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이름 전체를 걸어야 하는 위험이었죠.”

하지만 음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기대치도 함께 달라졌습니다. “진짜 승부수는 무선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와이어 없이도 훌륭한 사운드가 주는 감정적 타격감을 유지할 수 있느냐였죠. 저는 더 이상 스펙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소리를 듣고 미소를 짓는 순간, 그게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직감은 2012년 JBL Flip 1 출시로 이어졌습니다. 작지만 제대로 된 사운드를 구현한 초기 콤팩트 블루투스 스피커 중 하나였습니다. 단지 선을 없앤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음악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휴대용 오디오 혁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Auracast 같은 기술은 여러 스피커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혼자 듣던 음악을 즉시 사회적 경험으로 바꾸어줍니다. 하만 소비자 오디오 부문 사장 카스텐 올레센(Carsten Olesen)은 말합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은 이제 당연한 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품을 사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길 바라죠. 그 단순함이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편 AI Sound Boost는 콘텐츠와 환경에 따라 재생을 조정해, 선명도를 높이고 왜곡을 줄이며, 그 순간의 분위기에 맞게 사운드를 맞춰줍니다. 올레센은 덧붙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음악을 개별 요소로 분해하고, 당신이 있는 공간에 반응하며, 기구나 의도에 따라 바뀌기도 합니다. 목표는 사운드가 살아 있고 반응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자인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색상, 형태, 조명은 이제 젊은 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되었고, 이는 플레이리스트만큼 중요합니다. PartyBox 같은 대형 모델은 단지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자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엔 아주 아름다운 긴장감이 있어요.” 올레센은 말합니다. “스피커는 당신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순간이 오면 방 전체를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죠. 음악이 시작되고 조명이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순간, 무언가가 바뀌는 게 느껴집니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사운드가 아니라,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JBL은 삶이 어디로 향하든 사운드가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공식을 찾아냈습니다...무선으로.



브라질의 BOOMBOX 문화 속으로!

브라질 사람들에게 음악은 단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음악은 거리와 옥상, 공공장소를 가득 채우며, 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 중 하나가 바로 JBL Boombox입니다.

1980년대 Boombox 문화부터 현재의 블루투스 스피커 시대까지 해변과 공원, 파벨라 옥상에 이르기까지 브라질의 사운드스케이프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스피커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게 하고, 느끼게 하는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삼바, 펑크, 세르타네주, 힙합 어떤 음악이든, 사적인 플레이리스트는 공적인 순간으로 확장됩니다.

단순한 기술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을 붙여주는 매개이자 분위기를 만드는 장치이며, 종종 공간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내는 물건입니다. 하만 남아메리카(HARMAN South America)의 마케팅 디렉터 앤더슨 올리베이라(Anderson Oliveira)에 따르면, Boombox는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친구들과 음악을 함께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해변에서든 파티에서든, 어디서든요. 우리가 2018년에 Boombox를 출시했을 때, 그것은

곧 파티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인기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브라질은 JBL 글로벌 Boombox 판매량의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이는 이 제품이 브라질 문화와 얼마나 깊이 공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Boombox는 지금도 파티와 모임, 이동 중인 거리에서 익숙한 풍경의 일부이며, 함께 듣는 사운드가 곧 브라질이 움직이고, 축하하고, 연결되는 방식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사운드가 형태를 갖게 된 이야기

공유 공간과 새로운 기술, 그리고 인간의 필요가 우리의 청취 방식을 빚어온 과정



사운드는 늘 쉽게 이동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초창기, 영화는 막 목소리를 가지기 시작했고, 라디오는 음악이 가정에 도달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으며, 관객들은 함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과제는 단순히 더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멀리 전달되어야 했고, 음악은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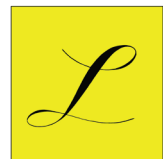
1964년, James B. Lansing Sound, Inc.의 사장은 산업디자이너 아널드 울프(Arnold Wolf)에게 새로운 기업 아이덴티티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브리프를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정체성이 "동시대적이고, 깔끔하며, 정밀하고, 기계적이면서도 품위 있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1967년에 도입된 로고는 이 비전을 충실히 구현했습니다. 그것은 정밀한 엔지니어링, 정확한 사운드, 미래지향적 디자인에 헌신하는 기업의 정신을 담아냈고, JBL이라는 이니셜을 브랜드의 상징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징은 지금까지 59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로고

한 사람의 서명이 어떻게 사운드 업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1946 - 1948



1948 - 1952



1948 - 1950



1950 - 1952



1952 - 1955



1955 - 1956



1956 - 1967



1967 - NOW



정밀한 청취

시네마(CINEMA)

영화가 처음 목소리를 갖게 되었을 때, 대사가 또렷하게 전달되도록 함.

무대(STAGE)

콘서트가 점점 더 크고 강렬해지던 시대, 라이브 음악을 뒷받침함.

스튜디오(STUDIO)

음반이 재생되는 방식을 넘어, 제작되는 방식 자체를 만들어감.

자동차(AUTOMOTIVE)

일상의 운전 환경 속으로 고품질 사운드를 가져옴.

모든 곳(EVERYWHERE)

스타디움에서 거리로, 다시 우리의 주머니 속으로.

제임스 B. 랑싱(James B. Lansing)은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라우드스피커는 더 이상 신기한 기술 장치가 아니라 문화의 기반 시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대신 퍼포먼스를 충실히 전달해야 했습니다. 랑싱은 실제 공간과 관객을 염두에 두고 금속과 종이, 자석을 손으로 다듬으며 더 멀리 전달되고, 더 또렷하게 들리며,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운드를 끈질기게 추구했습니다.

사운드가 영화관을 넘어 확장되면서, 청취는 더 사회적이고 더 이동적인 경험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클럽과 아레나, 넓은 야외로 흘러나갔고, 라이브 퍼포먼스는 사운드 시스템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출력만큼이나 제어가 중요했고, 밤마다 반복되는 공연 속에서 신뢰성 또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라우드스피커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출력이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됩니다. 하지만 목표는 여전히 같습니다. 사운드가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그 규모에 걸맞은 무결성과 충실도, 정밀성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80년에 걸친 시간 동안 청취 방식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기술은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화하겠지만, 기술이 충족시켜 주는 인간의 니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Lansing Manufacturing(1927~1941) 시절의 초기 로고들은 James B. Lansing의 이름과 서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그가 오디오 혁신과 탁월함의 상징으로 얼마나 강하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타의 선구자 레스 폴(Les Paul)은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랑싱은 단지 스피커 엔지니어가 아니었다. 그는 음악과 뮤지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사랑했고, 우리에게 그는 기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진정 '우리 편'인 기술자였다."

보이지 않는 것을 튜닝하다:

RAUL GONZALEZ

과학, 사운드, 그리고 영혼으로 이뤄진 그의 삶

오후 4시, 매디슨 스퀘어 가든(Madison Square Garden).

라울 곤잘레스(Raul Gonzalez)는 곧 1만 8천 명의 관객을 뒤흔들 튜닝 장비 앞에서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공연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스태프들은 무전기로 지시를 주고받으며, 장비 케이스가 바닥을 가로질러 이동합니다. 그러나 곤잘레스가 집중하는 것은 관객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캔버스'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캔버스를 세팅하고 있어요. 마치 그림을 그리기 전처럼요. 시스템 엔지니어와 저는 믹스 엔지니어가 자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사운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그는 익숙한 정밀함으로 스택 사이를 오갑니다. 그의 귀는 단순히 주파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분위기까지 감지합니다. 관객은 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연의 모든 비트와 모든 호흡 안에서 그의 작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순간들 뒤의 보이지 않는 힘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곤잘레스는 세계적인 대형 공연의 사운드를 완성해왔습니다. 내슈빌 그랜드 올 오프리(Grand Ole Opry)에서 빈스 길(Vince Gill)과 함께한 무대부터 록 인 리우(Rock in Rio)의 헤드라이너 샤키라(Shakira) 공연까지, 그의 정교한 작업은 잊지 못할 경험을 떠받쳐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은 드물지만, 그 영향력은 모든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집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자란 그는 집 안에 흐르던 라틴 음악과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팝, 록, 재즈를 통해 사운드에 빠져들었습니다. 퍼듀(Purdue)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위를 받고, 이후 연극 사운드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스페인 스타 홀리오 이글레시아스(Julio Iglesias)와의 월드 투어에 포함해 5년간 길 위에서 실무를 익힌 뒤 JBL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그는 라이브 투어, 상설 시스템 설치, 대형 글로벌 이벤트를 지원하는 대표 전문가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늘 그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믹싱의 예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수학과 음향학도 중요하죠.”

백스테이지에서, 그리고 시대를 앞서서

JBL에서 곤잘레스는 트랙을 믹싱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트랙을 떠받치는 도구들을 다룹니다. 수석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서 그는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설계 사양에 맞게 동작하도록 지원하며 라이브 사운드 팀을 뒷받침합니다. 스타디움의 라인 어레이를 보정하는 일부터, 현장에서 즉석으로 리그 설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까지, 라울은 시스템 엔지니어와 객석 음향 엔지니어들과 어깨를 맞고 일하며 강력하면서도 정밀한 사운드를 완성합니다.

“항상 세 가지 입력을 동시에 균형 잡아야 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 믹스 엔지니어,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듣고 있는 것. 빠르게 움직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압박이 클수록 침착해야 하죠.”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긴장감 넘쳤던 순간 중 하나는 멕시코의 상징적인 에스타디오 아스테카(Estadio Azteca)에서 8만 명의 관객 앞에 서는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 공연 직전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리허설 전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튜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설치, 튜닝, 리허설을 모두 하루 안에 마쳐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부 예측을 돌리고 모든 요소를 정교하게 다듬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공연장과 줄어드는 시간을 앞에 두고, 곤잘레스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경기장 역사에 남을 만큼 인상적인 콘서트였고, 이는 압박 속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와 직관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예측 시뮬레이션을 돌릴 시간도, 스피커 하나하나를 다 조정할 여유도 없었어요.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귀를 믿고, 크루를 믿고,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죠. 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그의 작우명은? 혼돈 속의 명료함

“중요한 건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스스로 말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전달하는 것이죠.”

캔버스와 케미스트리

모든 공연 전에 곤잘레스는 믹스 엔지니어와 그들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 대화를 나눕니다. “사운드 체크 전에 시스템이 80%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운드 체크 중에는 밴드가 실제로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화가의 작업처럼 여깁니다. EQ 커브, 앰프 설정, 주파수 응답을 정교하게 조정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캔버스는 공기예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당신은 소리로 그것을 형태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 공간을 통해 움직이고, 제대로 해냈다면 결국 시스템은 사라집니다. 청취자는 그저 음악만 듣게 되죠.”

수년에 걸쳐 곤잘레스는 수많은 엔지니어링 스타일에 적응해왔습니다. “어떤 엔지니어는 서브가 아주 강하게 치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중역대의 따뜻함을 더 원합니다. 그런 니즈를 빠르게 읽고, 실제 세팅으로 번역해낼 수 있어야 하죠.”

과학에 대한 충성

곤잘레스가 JBL에 충성하는 이유는 브랜딩이 아니라, 제품 안에 담긴 음향 과학입니다. 그는 선도적인 음향 엔지니어이자 혁신가인 알렉스 보이시빌로 박사(Dr. Alex Voishvillo), 마크 엔게브레트슨(Mark Engebretson), 마크 우레다(Mark Ureda), 존 올리브 박사(Dr. Sean Olive)등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재료공학, 심리음향학, 측정 기술 분야에서 이룬 돌파구는 오늘날 사운드 산업 전반을 형성하는 데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리우드스피커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게 만드는 스피커입니다. 그저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이죠.”

곤잘레스는 이론과 현장 적용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는 설계를 스타디움으로 가져가고, 다시 현장의 통찰을 JBL 엔지니어링 팀에 되돌려 줍니다. “저는 설계와 실제 퍼포먼스 사이의 루프를 닫는 일을 합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일을 늘 흥미롭게 만들어 주죠.”

테마파크부터 스타디움 투어에 이르기까지, 그의 접근법은 일관됩니다. 먼저 듣고, 그다음 측정하고, 신중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유산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곤잘레스는 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성공을 측정합니다. 그의 아들과 조카는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새아버지이자 삼촌이 JBL에서 일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인정은 오래 남습니다.

요즘 그는 퍼듀 대학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며 경력 초기의 엔지니어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모든 걸 직접 하지는 않게 됩니다. 대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하죠. 그때 비로소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는 믹싱을 하듯 멘토링도 합니다. 인내심 있게, 정밀하게, 그리고 각 사람이 지닌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며.

늘 배우는 사람

지금도 곤잘레스는 모든 공연장을 호기심으로 대합니다. “항상 배우게 됩니다. 모든 아티스트, 모든 공간이 새로운 걸 가르쳐줘요. 라이브 사운드는 마스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대응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는 여전히 객석 입장이 시작되기 전 공연장을 직접 걸어 다니며 반사음, 데드존, 혹은 공간이 숨기고 있는 힌트를 찾습니다. 이 끊임없는 디테일에 대한 주의가 그를 날카롭게 유지시킵니다.

핵심

곤잘레스는 완벽을 좇지 않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연결입니다. 그의 역할은 사운드가 의미를 품고, 명료함과 존재감, 감정을 담아 공간의 모든 구석까지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일은 여전히 그를 움직이게 합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은 스피커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느끼게 됩니다.”



Setting up at Birds Nest Stadium, Beijing

빠른 Q&A:

절대 건너뛰지 않는 곡

“다이어 스트레이츠(Dire Straits)의 Brothers in Arms. 2분 10초까지 넘긴 다음 거기서부터 들어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공연장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이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셋업

“베이징의 버드 네스트(Bird's Nest). 엄청난 규모의 공연장, 언어 장벽, 복잡한 리깅, 끝없는 이동 거리. 하지만 이를 밤 동안 8만 명.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투어 시 반드시 챙기는 물건

“종합 구급 키트, 방수 가방, 현금, 자격증명, 여권, 그리고 오디오 분석 장비는 항상 챙깁니다.”

공연 전 루틴

“제가 직접 믹싱을 할 때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찍 도착해서 공연장을 한 바퀴 돌고, 공간을 듣고, 크루들과 상태를 점검하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2025 라틴 레코딩 아카데미 '올해의 인물' 행사의 객석 음향 믹싱 엔지니어

시네마의 사운드

세상이 영화를 보는 방식을 바꾼 유산



**"영화에서 사운드와 음악은
엔터테인먼트의 50퍼센트입니다."**

— 조지 루카스(GEORGE LUCAS)

이 말은 영화계의 아이콘이 남긴 통찰로, 오디오가 영화적 몰입감에 얼마나 핵심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대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의 선구자 중 한 명인 그는 사운드 디자인과 음악이 단지 영상을 보완하는 요소가 아니라, 감정적 몰입을 형성하는 핵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사운드나 음악을 제거해보면, 긴장을 조성하고, 기억을 불러내며,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는 데 얼마나 많은 순간이 오디오 신호에 의존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20년대 후반, JBL의 창립자 제임스 B. 랜싱(James B. Lansing)은 라디오용 라우드스피커를 개발했습니다. 1930년대 초에는 보다 대형의 필드 코일 스피커가 영화관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MGM 스튜디오의 Shearer Horn 시스템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명료도와 커버리지 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리우드 황금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운드 혁신은 단지 영화를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Shearer Horn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1936년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Motion Picture Academy)로부터 과학기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의 영화관들이 이 기술을

채택했고, 이는 JBL이 블록버스터 시네마의 부상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가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40년대 초, 랜싱은 자신의 Lansing Manufacturing 회사를 Altec과 합병한 뒤 'Voice of the Theater' 시네마 스피커를 선보였습니다. 이는 영화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고, 1946년 JBL을 설립한 이후에도 그는 시네마 스피커 개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1980년대로 넘어오면, JBL 엔지니어들은 영화관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합니다. 바로 JBL Bi-Radial 상수지향성 혼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후 JBL 4675 시스템으로 발전하며, 다시 한번 업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영화 산업의 레퍼런스 영화관인 베벌리힐스의 골드윈 극장(Goldwyn Theater)에 설치되었고, 최초의 THX 승인 스피커 시스템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JBL은 1980년대 루카스필름(Lucasfilm)과 협업하며, 자사 제작물이 THX 사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10년 동안 JBL은 최초의 현대적 3웨이 스크린 채널 시스템인 JBL 5674를 선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1996년 골드윈 극장 리노베이션 당시 맞춤형 JBL 서라운드 및 서브우퍼와 함께 설치되어, 모든 좌석에 놀라운 임팩트와 디테일, 명료함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JBL은 말 그대로 오스카를 거머쥐게 됩니다. 2002년, JBL 엔지니어 세 명은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가 라우드스피커 기술 업적에 수여할 수 있는 가장 권위 있는 상 두 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현대적 상수지향성, 직접방사형 영화관 라우드스피커 시스템의 개념,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 대한 과학공학상(Scientific and Engineering Award), 다른 하나는 '필터드 라인 어레이와 스크린 확산 보정을 영화관 라우드스피커 시스템에 적용한 엔지니어링 및 설계'에 대한 기술업적상(Technical Achievement Award)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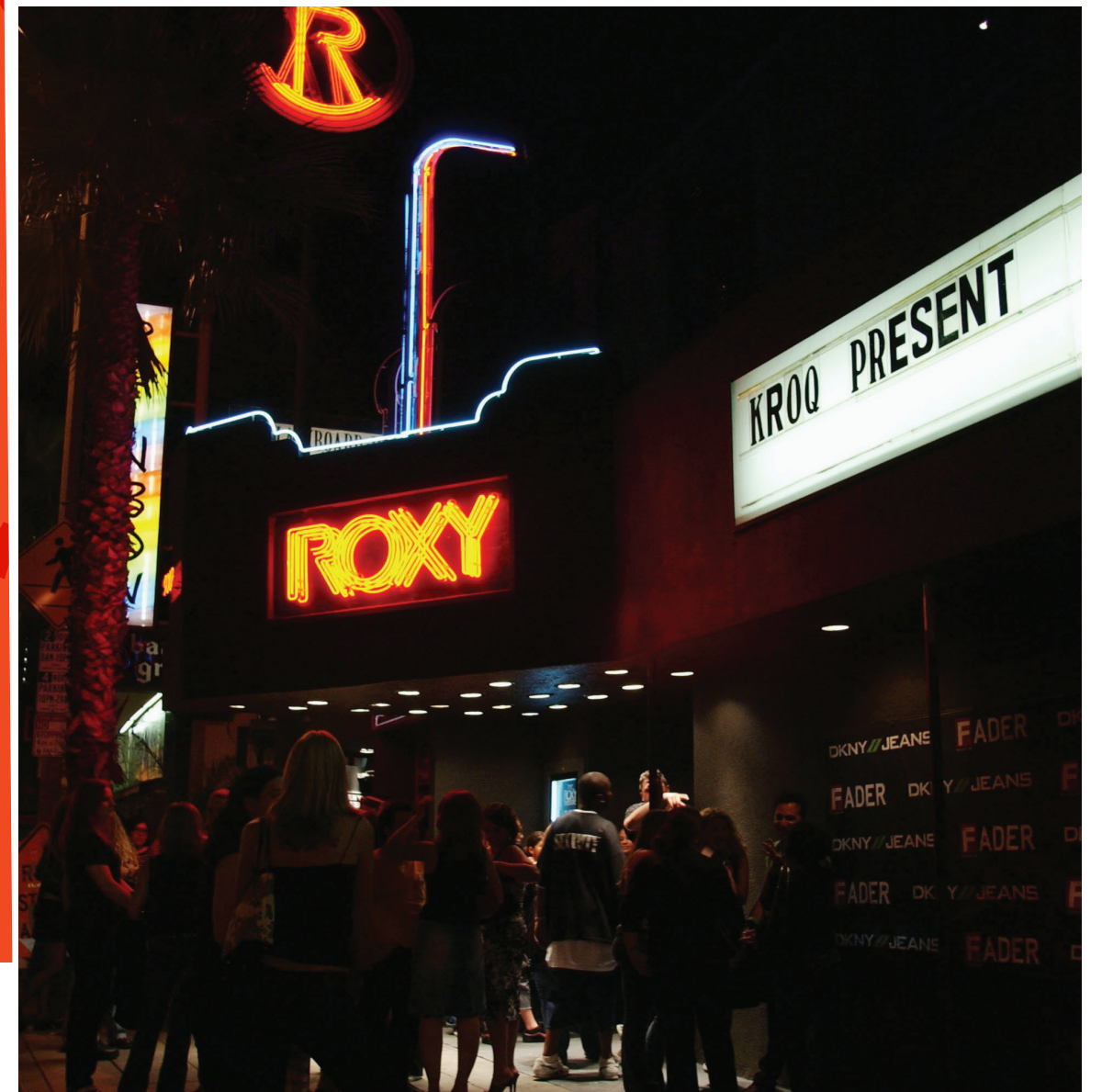
오늘날 JBL은 여전히 전 세계 시네마 시장의 리더 중 하나로서, 모든 좌석에 몰입감 있고 정교하며 정확한 사운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JBL은 영화관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하이엔드 홈 시네마는 물론 일반 거실 환경에도 적용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워너 브라더스(Warner Brothers), 테크니컬러(Technicolor), 돌비(Dolby)의 스크리닝 룸, 미국 감독조합(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그리고 텔레비전 예술과학아카데미(The Academy of Television Arts & Sciences)에서도 JBL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JBL은 단지 영화의
사운드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영화적 경험
전체를 정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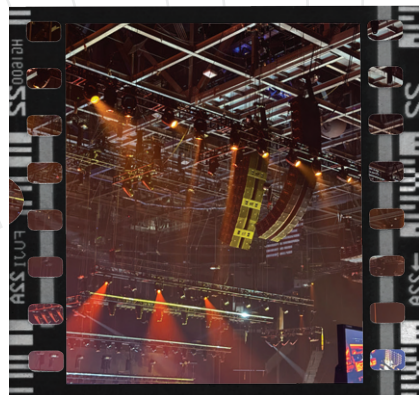


무대를 위해 설계되다

JBL 시스템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라이브 순간들을 함께해 왔습니다. 백룸의 작은 공연부터 전 세계 생중계 무대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명을 감동시킨 공연들과 그 무대 뒤에 숨겨진 사운드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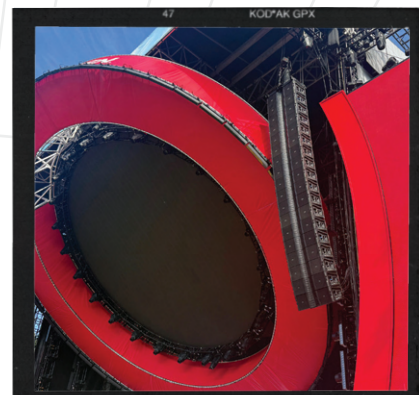
백룸에서 전 세계 팬들이 만드는 이것이 스테이지의 정점이다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MTV VIDEO MUSIC AWARDS)

북미
(NORTH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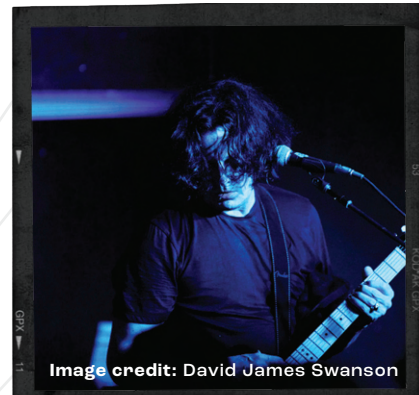
2025년 VMA에서는 아레나 현장의 에너지와 방송용 사운드를 모두 구현하기 위해 기록적인 수량인 JBL 스피커 180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GLOBAL CITIZEN FESTIVAL)

뉴욕시, 뉴욕
(NEW YORK CITY,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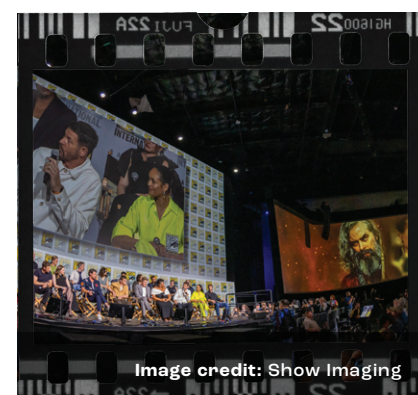
JBL VTX 라우드스피커를 통해 6만 명이 넘는 관객이 바리케이드 앞에서부터 센트럴파크 후방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수준의 사운드를 경험했습니다.



잭 화이트 - 아메리칸 리전 포스트 82 (JACK WHITE AT AMERICAN LEGION POST 82)

내슈빌, 테네시
(NASHVILLE, TENNESSEE)

앨범 발매 기념 파티를 위해 잭 화이트는 JBL SRX900 Series 라우드스피커의 상설 업그레이드를 선택했으며, 이는 해당 공연장과 커뮤니티에 오랫동안 혜택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코믹콘 (COMIC CON)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SAN DIEGO,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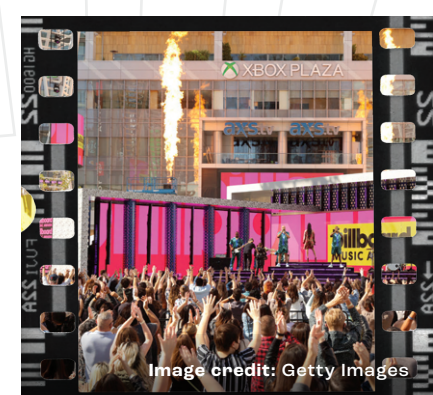
2024년 샌디에이고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코믹콘은 13만 5천 명이 넘는 팬을 모았습니다. 영화 상영과 라이브 패널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구성에는 JBL VTX A Series 라인 어레이와 B28 서브우퍼, JBL Venue Synthesis가 사용되었습니다.



더 록시 시어터 (THE ROXY THEATRE)

할리우드, 캘리포니아
(HOLLYWOOD, CALIFORNIA)

상징적인 섀넌 스트립 공연장인 The Roxy는 JBL VTX A-Series와 함께 음악 업계의 거목들이 거쳐 간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틴 빌보드 어워드 (LATIN BILLBOARD AWARDS)

텔레문도 센터, 마이애미, 플로리다
(TELEMUNDO CENTER, MIAMI, FLORIDA)

JBL은 텔레문도의 편집 공간, 포스트프로덕션, 방송 스위트 전방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물론 Latin Billboard Awards 무대에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ICONICITIES



런던 콜링 LONDON CALLING

도시의 한복판에는 특별한 문화적 회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사운드와 연결되고 싶은 음악 애호가들을 끌어들이는 길입니다. 탐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정은 웨스트엔드의 관문인 활기찬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시작됩니다. 대담한 그라피티 스타일의 벽화가 도착을 알립니다. 이어 예술적인 분위기의 소호 방향을 향해 마셜 스트리트의 자연스럽게 멋스러운 공간을 들르고, 마지막으로 골목길을 따라 덴마크 스트리트에 도달합니다. 이곳은 '틴 팬 앨리(Tin Pan Alley)'로 불리며, 100년 넘게 영국 음악이 쓰이고, 연주되고, 판매되고, 다시 태어난 장소입니다.

이 짧은 런던의 구간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이 길을 단지 걷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여정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아티스트가 운영하는 레코드숍을 거쳐, 자기 표현으로 빛어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음악 테마 산책이 아니라, 도시의 다양한 사운드스케이프를 탐험하는 과정입니다. HMV에서의 발견의 설렘, Third Man Records에서의 진정성에 대한 경이, 그리고 B.R.A.T.에서의 몰입형 소속감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발견의 사운드: HMV 옥스퍼드 스트리트

1990년대 컬트 클래식 영화 Empire Records의 감성을 떠올리게 하는 HMV는 디지털 시대에 음악을 물리적 인식처럼 다시 즐기는 기쁨을 되살립니다. 광대한 바이닐 랙과 CD 진열, 머천다이즈를 둘러보며 화면 밖에서 음악을 천천히 마주할 수 있는 리테일 공간입니다.

매장 전반에서 사운드는 결코 배경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레코드를 고르는 순간에도, 그냥 지나치는 순간에도 사운드는 공간의 감각을 형성합니다. 친밀하면서도 편치감 있는 이 균형을 JBL이 구현합니다. 1층 전역에서는 JBL Control 65 펜던트 라우드스피커와 JBL Control 60 펜던트 서브우퍼가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소음을 뚫고서도, 대화와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선명하고 고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런던의 문화적 회랑에서 바티칸의 광장까지 이어지는 사운드 여정

사운드는 공연장의 규모나 도시의 풍경과 관계없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을 지닙니다. 이런 연결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공간의 요구를 존중하는 프로페셔널 오디오 시스템에 의해 설계되며, 그 결과 사운드는 듣는 것을 넘어 함께 기억되는 경험으로 번역됩니다.



또한 HMV 옥스퍼드 스트리트는 단지 매장 경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곳은 매장 내 공연과 아티스트 사인회를 위한 공간으로도 기능하며, 이때 음악은 배경 소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 자체가 됩니다.

여러 층에 걸쳐 운영되지만, 이곳은 스스로를 클럽이나 극장처럼 포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라이브 공연 무대는 보다 즉각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펼쳐지는 어쿠스틱 셋과 절제된 퍼포먼스입니다.

이 라이브 스테이지에서는 JBL SRX910 라인 어레이 스피커가 리테일 환경에서는 결코 작은 도전이 아닌, 콘서트급 명료함과 스케일을 구현합니다. 한편, JBL SRX928S 듀얼 18인치 서브우퍼는 라이브 공연에 필요한 물리적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느껴지는 저주파가 청취자를 순간 속에 붙들아두고, 이제 막 도약하려는 아티스트와 진정한 감정적 연결이 가능해지는 조건을 만듭니다.

HMV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발견은 하나의 공유 경험입니다.



진정성의 사운드: 서드 맨 레코즈(THIRD MAN RECORDS)

스트리밍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서드 맨 레코즈(Third Man Records)는 아날로그 음악과 장인 정신을 지키는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동 설립자 잭 화이트(Jack White)의 흔적은 공간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음악은 청취자가 속도를 늦추고 온전히 집중할 때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는 오디오 애호가의 확고한 신념이 이곳을 관통합니다.

강렬한 산성 노란색 외관은 안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고합니다. 문을 열면 바이닐, 빈티지 레코드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가 가득한 작고도 독특한 리테일 공간이 드러납니다. 이곳의 음악은 배경으로 흘러지지 않고, 여전히 선명하고 물리적인 존재로 남습니다. 그 명료함은 JBL AE Compact AC16 라우드스피커가 담당하고, JBL ASB6112 서브우퍼가 재생에 깊이와 온기를 더합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노란색은 코발트 블루로 바뀌며, 이름 그대로의 Blue Basement가 펼쳐집니다. 이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작은 공연과 DJ 셋이 이어지고, 야의 파티오는 곡 사이 잠시 숨을 돌릴 공간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아티스트와 방문객이 직접 바이닐을 커팅할 수 있는 오래된 스타일의 작은 부스, 'Literarium'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거리감도, 산만함도 없는 방입니다. 볼륨보다 디테일이 중요하고, 힘보다 명료함이 중요합니다. 현 위를 스치는 손가락 소리, 구절 사이의 숨, 정확한 타이밍에 떨어지는 스테어의 스냅이 그대로 들립니다.

이토록 가까운 공간에서 사운드 시스템은 단지 큰 소리나 세련된 마감으로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JBL AM7215/95 고출력 라우드스피커는 퍼포먼스를 교정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디테일을 잃지 않으면서도 힘을 전달합니다. 저음은 공간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실어 나르고, JBL AE Compact AC18 및 AC16 라우드스피커는 어디에 서 있든 보컬이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매끄러운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Third Man 은 규모나 스펙터클이 아니라 친밀함과 진정성 위에 명성을 쌓아온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운드는 일종의 성격과도 같습니다. 심지어 이곳의 프로페셔널 시스템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스템이 가장 순수한 경험을 온전히 전달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왜곡되거나 본질과 다르게 흉내 내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공간을 만듭니다... JBL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소리를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온전히 전하는 것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입니다."

— 잭 화이트, Third Man Records 공동 설립자 및 공동 오너



자기표현의 사운드: B.R.A.T

1950~70년대의 덴마크 스트리트는 작은 거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롤링 스톤스(Rolling Stones),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섹스 피스톨즈(Sex Pistols)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운드와 문화를 만들던 뮤지션들이 스튜디오와 카페, 리허설 공간을 오가던 자석 같은 장소였습니다. '틴 팬 앨라'라는 별명처럼, 이곳은 좁은 공간에서 곡이 시험되고, 밀도 높은 거리감 속에서 장면이 만들어지고, 인간적인 불륜으로 음악이 처음 울려 퍼지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B.R.A.T 허브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이 유산을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살아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블러드(YUNGBLUD)가 설립한 B.R.A.T(Beautifully Romanticized Accidentally Traumatized)는 아티스트가 주도하고,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사운드는 더 넓은 감정적 생태계의 일부가 됩니다. 라이브 음악은 시 낭독회, 아트 클래스, 영화 상영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위층에서는 커피나 블러드비어(Bludbeer)를 즐기며 워크숍에서 직접 만든 주얼리와 쿠션, 티탄 킷트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기 표현은 이 공간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발밑의 레오파드 프린트 카펫, 검게 칠한 벽에 반사되는 보랏빛 조명까지. 이 펑크 클럽 감성은 지하로 내려갈수록 더 날것이 됩니다. 과거 리허설 공간이었던 지하실에는 여전히 아티스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이제는 영국 음악의 다음 장을 이끌 신예들의 라이브 무대가 펼쳐집니다.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움직이고, 촬영하고, 공유합니다. 이곳은 문화를 현재의 순간과 스마트폰 렌즈를 통해 동시에 경험하는 세대를 위해 설계된 공간입니다. JBL의 SRX900 라인 어레이와 고정형 모니터 솔루션은 이러한 이중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방 안에서 들리는 것만큼이나 영상으로도 잘 전달되는 오디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B.R.A.T의 거친 모서리를 매끈하게 다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거침을 보호하며, 이 공간을 정의하는 여과 없는 자기 표현을 지지합니다.



"이곳은 문화를 현재의 순간과 스마트폰 렌즈를 통해 동시에 경험하는 세대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바티칸으로부터의 호출

런던의 거리에서 출발한 여정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야의 공간 중 하나로 넓어집니다. 성 베드로 광장(St. Peter's Square)은 17세기 베르니니(Bernini)가 설계한 거대한 반원형 콜로네이드에 둘러싸인 바티칸 시국의 중심 공간입니다. 수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광장의 개방감은 웅장함만큼이나 의도적인 것입니다. 바티칸 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일부로 지정된 이곳은, 오늘날의 개입이 맞닥뜨리는 본질적인 과제를 상징합니다. 즉, 문화적·건축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필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규모의 사운드: 성 베드로 광장

런던의 공연장들이 인간 규모에서의 사운드를 탐구한다면, 바티칸은 거대한 거리 전체에 걸쳐 들리는 명료함을 요구합니다. 바티칸이 JBL Professional에 성 베드로 광장의 사운드를 새롭게 구성하는 임무를 맡겼을 때, 그것은 유산에 대한 존중, 높은 기술적 난도, 그리고 사운드가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3년간의 프로젝트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 환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지만, 음향적으로는 매우 가혹합니다. 약 1,000피트에 이르는 광대한 야외 공간, 최대 8만 명의 군중, 그리고 거의 전부가 소리를 반사하는 대리석 표면으로 이루어진 구조. 이곳에서 훌륭한 사운드는 오직 대규모 환경 속 정밀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JBL Professional은 하만 계열 자매 브랜드인 Crown 앰프와 BSS 디지털 신호 처리 장비와 함께, 전략적으로 배치된 10개의 VLAC 어레이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거의 0.5마일에 이르는 네트워크를 통해 엔지니어들은 광장의 음향 특성과 교황의 연설에 맞춰 독자적인 프로파일을 정교하게 튜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티칸의 의식 구조에 맞추기 위해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하나는 광장 앞쪽에서 진행되는 성찬 예식을 위한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이 광장을 내려다보는 거처에서 군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안젤루스(Angelus)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 두 시스템은 메시지가 어디에서 발화되든 상관없이, 군중 전체에게 명료하고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설치 프로젝트는 JBL Professional이 수행한 오디오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장소와 목적, 그리고 사운드가 대규모로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혁신이 이뤄질 때 무엇이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계를 밀어붙이다

JBL Professional 스피커가 무대나 스튜디오에 도달하기 전, 그 스피커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테스트됩니다. 흔들리고, 가열되고, 얼려지고, 고출력으로 몰아붙여지며, 일반적인 사용 한계를 훨씬 넘는 수준까지 시험됩니다.



세계적 수준의 정밀 스피커는 스타디움에서 버텨야 하고, 페스티벌 환경을 견뎌야 하며, 스튜디오에서는 완벽하게 동작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단순한 최종 점검이 아니라, 잔혹한 현실과 만나는 엔지니어링 철학 그 자체입니다.

생존의 사운드: 압박 속 음향 테스트

현실의 사용 환경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오디오 장비는 어떤 조건에서도 반드시 작동해야 합니다. 모든 JBL 스피커는 약점을 드러내고, 강한 충격을 받아도 흠 없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강도 높은 품질 테스트를 거칩니다.

JBL 음향 시스템 글로벌 매니저 PJ 르네(PJ Rene)는 악명 높은 '파워 테스트(power test)'를 설명합니다. 이 테스트는 라우드스피커를 절대 한계까지 밀어붙입니다. 정격 출력 전체를 걸고, 최대 볼륨으로, 최대 100시간 동안 쉬지 않고 재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날 이어지는 페스티벌도 스피커를 그렇게 가혹하게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수준이 바로 그것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기준이니까요."

이 세션은 최대 140데시벨에 이르며, 보호장비 없이 노출될 경우 심장 두근거림까지 유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계적 테스트를 총괄하는 케빈 베일리(Kevin Bailey)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 있으려면 귀마개를 이중으로 해야 할 정도예요. 정말 엄청나게 가혹하죠!"

하지만 그 가혹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르네의 팀은 열 내구성을 시험하기 위한 연속 신호와, 트랜스듀서 및 인클로저의 기계적 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리드미컬한 필스를 조합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스피커는 테스트 전 과정 내내 모니터링됩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약한 지점을 먼저 찾아내는 것.

내구성도 중요합니다. 많은 JBL Professional 스피커는 10년에서 15년 동안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르네는 말합니다. "우리는 출시 첫날의 성능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화를 가속하는 거죠. 몇 주간의 동작, 그리고 온도와 습도 사이클을 통해 현실의 10년 사용을 며칠 안에 시뮬레이션합니다."

부쉬야 만들 수 있다: 기계적 스트레스 테스트

르네가 명료함과 음색에 집중한다면, 베일리는 말 그대로 스피커를 부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머리 위에 매달아도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스템은 종종 군중 위에 매달려 설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의 팀은 캐비닛, 리깅, 인클로저에 대해 파괴적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뒤집고, 떨어뜨리고, 흔들고, 응력을 가해 무엇인가가 부서질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손이 발생하면, 그것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힘에서만 일어난 것인지를 검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JBL은 계속해서 실패 지점 이후까지 설계합니다.

테스트는 콘셉트 단계에서 시작해 생산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JBL의 개념 검증(Concept Verification), 엔지니어링 검증(Engineering Verification), 설계 검증(Design Verification), 생산 검증(Production Verification) 전 단계에 걸쳐 모든 프로토타입은 점점 더 강한 물리적 시험에 노출됩니다. "한 스피커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 기간 내내



우리는 그걸 계속 괴롭히고 있는 셈이죠." 베일리는 웃으며 말합니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 성능이 좋은 유닛은 음향 팀으로 보내져 상세한 사운드 프로파일링을 거치고, 나머지 일부는 베일리 팀으로 넘어가 물리 테스트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물량을 나눕니다. 어떤 건 사운드 팀으로 가고, 어떤 건 저한테 와서 아주 제대로 언어맞게 되죠."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

이처럼 집요한 테스트는 단지 체크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에 관한 일입니다. 100개 도시를 도는 월드 투어 리그부터, 리우의 열대성 비를 맞는 헤드라인 무대, 베를린의 열기 속에서 이어지는 마라톤 DJ 세션에 이르기까지 JBL 스피커는 압박 속에서 살아남도록 설계됩니다. 도로 위의 충격, 서버베이스의 진동, 그리고 군중과 기호가 만들어내는 극한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입니다. 베일리의 말처럼, "우리는 단지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그것을 부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먼저 부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스피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그것을 부수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가 먼저 부숴보는 것입니다."

소름으로 주파수를 측정하는 엔지니어를 만나다

CHRIS HAGEN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JBL의 수석 엔지니어 크리스 하겐(Chris Hagen)은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스피커를 설계해왔습니다. 그에게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측정값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듣고 그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하겐은 손에 들고 다니는 AM/FM 라디오를 통해 클래식 음반과 모타운 음악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조용한 주말의 기억은 그의 사운드에 대한 감각을 빚어냈습니다. 사운드는 배경 소음이 아니라, 집이라는 감각 자체가 되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업계 경력을 지닌 베테랑 엔지니어인 하겐은 곡선과 수치, 스펙을 읽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서적·신체적 반응입니다. “주파수 응답은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름은 측정할 수 없죠.” 그는 한 번은 음악 프로듀서에게 Multicap 시스템을 데모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데모가 끝난 후 그 프로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의도를 담아 설계하다

JBL에서 하겐은 Multicap 크로스오버 시스템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캐패시터 설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사운드 왜곡을 줄이고, 더 깨끗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JBL Summit Series 같은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되었으며, 최근 일본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상 중 하나인 Stereo Sound Grand Prix 2025를 수상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테스트 랩을 위해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듭니다.”
하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스피커는 반드시 하나의 최종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연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직 끝낸 것이 아닙니다.
“최종 판단자는 언제나 청취자입니다.”



“주파수 응답은 측정할 수 있지만, 소름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PLAYLIST

하겐이 튜닝에 사용하는 톱 5 플레이리스트

- 1 “ON YOUR SHORE” - ENYA(WATERMARK 수록)**
극단적인 대역이 거의 없는 곡으로, 엔야(Enya)의 목소리는 치찰음과 부드러운 댄핑 사이의 경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중역대는 중심에 굳게 자리해야 하며, 베이스 라인은 과장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은은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 2 “THANKS TO YOU” - BOZ SCAGGS (DIG 수록)**
깊은 저역, 존재감 있는 보컬, 넓고 깊은 이미징, 그리고 우드블록 소리가 스피커의 한계를 잘 드러내는 곡입니다. 저역이 충분치 않거나 과도할 때, 보컬이 너무 앞으로 나오거나 고역이 많고 적을 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동시에 훌륭한 스피커 시스템에서는 악기들 사이의 공간감과 어둠도 잘 보여줍니다.
- 3 “WE DON’T TALK ANYMORE” BY CHARLIE PUTH FEAT. SELENA GOMEZ (NINE TRACK MIND 수록)** 강력하고 깊은 베이스 톤들이 각각 분명히 구분되어 들려야 하는 곡입니다. 모든 저역 음을 정확히 재생하고, 각각 다른 톤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곡으로는 다프트 펑크(Daft Punk)의 “Solar Sailor”(Tron: Legacy 사운드트랙 수록)를 추천합니다.
- 4 “MAYA SHAKTI” - MY SLEEPING KARMA (ATMA 수록)** 초반부 사운드는 두 스피커 사이 중앙에 작은 모노포닉 공처럼 응집되어 있어야 하며, 이후 확장되면서 스피커 바깥과 방의 측면까지 감싸는 3차원 사운드필드로 발전해야 합니다.
- 5 “SAEED” - INFECTED MUSHROOM(ARMY OF MUSHROOMS 수록)** EDM 장르 특성상 많은 악기가 전자적으로 만들어진 곡이며, 이 곡은 사운드필드 안에서 악기가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움직임을 활용합니다. 동시에 강하고 단단한 저역이 필요한 음악입니다. 대체 곡으로는 아트뱃/베니 베나시(Artbat/Benny Benassi)의 “Love is Gonna Save Us”를 추천합니다.



브랜드 카 오디오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

백스테이지에서 대시보드까지: JBL과 토요타가 새로운 시대의 시동을 건 이야기

JBL과 토요타(Toyota)가 1990년대 중반 처음 손을 맞잡았을 때,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매일 머무는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공간, 즉 자동차 실내에 타협 없는 오디오를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너십 초기 몇 년은 실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만 오토모티브 글로벌 오토모티브 부문 부사장 제프 트라이그(Jeff Treige)의 말처럼, “이 관계는 고객-공급업체 관계라기보다 동료 관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스펙 시트의 항목 하나를 채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운드에 대한 공통된 애정에서 출발한, 보다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초기 작업은 1998년 JBL 사운드를 탑재한 최초의 토요타 모델 출시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1998년에 아리스토(Aristo)와 해리어(Harrier) 두 차종에 처음 적용됐고, 이후 북미로 확대됐습니다. 2006년쯤에는 북미의 거의 모든 토요타 차량에 JBL이 들어가게 되었죠.”

처음 20년 동안의 성장은 점진적이고 선형적이었습니다. 양사 엔지니어들은 스피커 배치, 오디오 튜닝, 시스템 통합을 세심하게 다듬으며 모든 오디오 컴포넌트가 차량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순간: 2012년의 전환점

그러다 2012년경, 하나의 변곡점이 찾아옵니다. 자동차 안에 달린 브랜드 오디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 모델이나 우연한 성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오디오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식이 전반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에서 더 역동적인 청취 경험을 원하게 되자, 토요타는 프리미엄 오디오를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할 기회를 보았습니다. JBL 프리미엄 오디오를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확대한 것은, 훌륭한 차량이라면 훌륭한 사운드도 갖추어야 한다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품질 오디오를 보다 많은 운전자에게 제공한 결정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만 오토모티브의 JBL 수석 엔지니어 리시 다프트וא르(Rishi Daftuar)는 말합니다. “JBL은 언제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공명할 수 있는 강한 임팩트를 지닌 브랜드일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자동차 안에서의 사운드 경험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단단한 저역, 선명한 고역. 곧 도로 위의 JBL 사운드를 구현한 것이죠.” 그는 덧붙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자동차용 스피커 성능을 끌어올렸고, JBL 사운드의 시그니처인 더 큰 다이내믹스를 구현하기 위해 부스트 레일 앰프(boosted rail amplifiers)를 도입했습니다.”

엔지니어링과 공감: 그 공간에 속하는 사운드를 만들다

이 파트너십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지 시간의 길이나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JBL과 토요타가 아주 이른 단계부터 오디오를 차량 설계의 일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사후 옵션이 아니라, 차량 경험의 핵심 요소로 본 것입니다. 모든 스피커, 모든 인클로저, 모든 앰프는 특정 캐빈의 음향 구조에 맞춰 세심하게 선택되고, 튜닝되고, 배치되었습니다.

작은 차에서는 제한된 공간과 실내 형상을 고려해야 했고, 대형 SUV와 세단에서는 여러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모든 승객을 자연스럽게 감싸도록 조율해야 했습니다. 목표는 스튜디오처럼 분석적인 재현이 아니라, 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사운드였습니다. 트라이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 프로세스에는 토요타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직접 차량 안에서 음악을 듣는 단계가 포함됩니다.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보면, 이런 친밀한



공간에서 JBL 사운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출퇴근 그 이상: 당신 인생의 이야기에서 사운드가 중요한 이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JBL 시스템이 탑재된 토요타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스피커는 단지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로드트립 플레이리스트, 늦은 밤의 통화, 이른 아침 출근길, 새 집으로 향하는 긴 운전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그런 순간 자동차는 하나의 쉼터가 되고, 스피커는 동행자가 됩니다.

하만 오토모티브 브랜드 매니지먼트 디렉터 카일 로슈(Kyle Roche)는 말합니다. “자동차 안의 JBL은 어떤 의미에서는 평화의 고치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사람을 들뜨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사람들이 실제로 찾고 싶어 하고 즐기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되죠. 사람들은 이 브랜드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삶을 더 편하게 만들고, 통화를 더 또렷하게 해주며, 언제나 곁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카 오디오는 매우 개인적인 존재가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잔잔한 음악을 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던 기억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뿐인 콘서트로 향하던 길, 첫 번째 로드트립, 혹은 매일의 출근길에서 벌어지던 가라오케의 사운드트랙입니다. 그것은 기억을 되살리고, 순간을 증폭시키며, 단지 손잡이를 돌리거나 화면을 한 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바깥세상과 내면의 세계를 동시에 연결해줍니다.

앞을 바라보며

자동차 안의 브랜드 오디오 움직임은 요란한 팡파르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악을 사랑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그 조용한 시작은 전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JBL과 토요타는 계속 협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캐빈 구조에 맞는 사운드를 튜닝하고, 기술을 진화시키며, 모든 주행을 안락함과 명료함, 감정을 함께 녹여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더 연결되고, 더 일상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갈수록, 사운드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BL과 토요타의 이야기는 엔지니어링이 공감과 만났을 때, 오디오가 구조와 만났을 때, 그리고 두 팀이 단지 제품이 아니라 경험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다는 목표에 함께 헌신했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할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관계는 전형적인
고객-공급업체 관계가
아니라 동료 관계에서
시작됐고, 그 이후 우리는
집요하게 최고의 오디오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공해왔습니다.”

-제프 트라이그



미래를 위해 JBL의 역사를 집요하게 다시 세우다

빈티지 JBL 스피커에 새 생명을 불어넣고,
그 노하우를 전 세계와 나누는 슈퍼팬을 만나다

혹시라도 잠깐의 여유가 생긴다면, JBL 애호가 찰스 머독(Charles Murdoch)은 거의 틀림없이 자신의 컬렉션을 복원하거나,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 외곽의 작업실에서 클래식 JBL 시스템을 손보고 미세 조정하는 데 그 시간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폴타임 캐비닛 제작자인 그는 25년이 넘는 시간을 JBL의 유산을 수집하고 학습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부품을 복원하든, 세계 곳곳의 대형 레거시 시스템과 설치 프로젝트를 다루든, 그는 늘 JBL의 유산을 오늘에 살아 있게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는 퀘벡주 보드뢰유(Vaudreuil)에 있는 로컬 펍 Grace's를 위한 상징적인 JBL 4345 한 쌍,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맞춤형 JBL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JBL 레거시 제품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식 키사(Kissa) 미학을 반영해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새로운 하이파이 바 트렌드는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며, JBL 컴포넌트의 정수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JBL이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JBL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는 걸 보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유산의 증거예요.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역사죠. 제가 빈티지 JBL 시스템과 부품을 다룰 때면, 이 놀라운 제품을 만든 엔지니어들과 어떤 연결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그 부품들에 두 번째 생명을 주고, 그 엔지니어들의 JBL 정신을 계속 살아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는 거대한 JBL 혼과 스피커로 둘러싸인 거실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합니다.



Image credit: Charles Murdoch



Image credit: Charles Murdoch

머독에게 빈티지 JBL에 대한 정보와 경험은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수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여하며, 점점 커지고 있는 빈티지 스피커 수집가들에게 복원과 수리에 대한 조언을 나누어 왔습니다. “핵심은 전 세계의 열성 팬, 수집가, 그리고 이것저것 직접 손대보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자료이자 책임 있는 관리자가 되려는 거예요. 제 경험이 누군가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 공유합니다. 누군가는 예전에 제가 멈췄던 바로 그 지점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올바른 정보를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커뮤니티는 더 강해지니까요.”

앞을 내다보며 머독은 Lansing Heritage 포럼과 기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축적된 온라인 정보가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의 제작자, 수집가, 음악 애호가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질문하고, 이 유산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피커 디자인이 변화하고 기술이 달라지더라도, 그는 JBL의 본질은 그대로일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하고, 돌보이며,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진 엔지니어링. “장비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은 바뀌지 않죠. 우리가 진짜 보존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앞으로도 늘 해오던 일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맞춤 설치를 준비하고, 부품을 모으고, 납땜하고, 샌딩을 하는 일입니다. 온라인에서 팀을 계속 나누는 동시에, 스스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자 합니다. 거실과 바, 클럽은 물론 온라인 포럼 안에서까지 JBL의 유산이 단지 타임라인 속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JBL은 제 인생의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열정의 대상이었고, 저는 아직도 지식과 이해 면에서 겨우 표면만 긁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GIRLS MAKE BEATS

GIRLS MAKE BEATS



GIRLS MAKE BEATS

음악의 미래를 다시 쓰다



그녀는 프로덕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을 익혔고, 자신의 트랙을 직접 엔지니어링했으며, 지금은 DJ Khaled, Rick Ross, French Montana와의 협업을 포함한 디스코그래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누구도 그 길을 혼자 헤쳐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2012년 Girls Make Beats(GMB)를 탄생시켰습니다. 열정 프로젝트로 시작한 이 조직은 지금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 5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에게 음악 제작, DJing, 오디오 엔지니어링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과 멘토링, 실제 업계 경험을 제공합니다.

GMB가 지원하는 소녀 중 약 4분의 3은 흑인, 라틴계, 저소득 가정 출신을 포함한 역사적으로 대표성이 낮았던 집단에 속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기회를 접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GMB는 이들에게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창작 공동체와 음악 산업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자신감까지 제공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런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GMB는 반드시 존재해야 했습니다.”

볼륨을 높이다

초기 시절, 미란다는 한정된 자원 안에서 GMB를 꾸려야 했습니다. 열정은 충분했지만, 성장에 필요한 장비나 지원이 늘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JBL의 베키 바라바스(Becki Barabas)를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은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필요한 게 뭐든 말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줬죠.”

그 순간은 강력한 파트너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JBL은 단지 응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티파니 미란다(Tiffany Miranda)는 처음부터 비영리 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음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레코딩 아티스트이자 프로듀서, 엔지니어로서 그녀는 특히 유색인종 여성에게는 좀처럼 자리를 내주지 않던 업계 안으로 스스로 길을 뚫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GMB 학생들이 실제 프로페셔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크, 헤드폰, 스튜디오 모니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소녀에게 고급 장비를 직접 다루는 경험은 자신과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JBL의 지원은 일반적인 브랜드 파트너십보다 훨씬 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차이를 귀로 들입니다. 그게 계속 창작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죠.”

로컬 비트에서 글로벌 스테이지로

카이야 니야샤(Kaiya Nyasha)는 GMB를 통해 자신의 길을 찾은 많은 소녀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녀는 음악을 사랑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조용한 심대였습니다. GMB의 워크숍, 공연, 멘토링을 거치며 그녀는 기술과 자신감을 함께 키웠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빌리 아일리시(Billie Eilish), 존 서밋(John Summit) 등이 소속된 Darkroom Records에서 크리에이티브 및 A&R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미란다는 말합니다. “그녀는 접근 기회와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예요. 단순히 트랙을 믹싱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그 차이를
귀로 들입니다. 그게 계속
창작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죠.”

글로벌 임팩트를 향한 공동의 사명

미란다는 GMB를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음악은 국제 공용어예요. GMB 역시 국제적이어야 하죠.”

이 비전은 JBL의 목적과도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JBL은 JBL Music Academy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신예 인재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도구와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GMB는 그 파이프라인을 더 앞단에서 강화하며, 젊은 창작자들이 이른 시기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란다는 음악 산업 안의 빈틈을 보았고, 그것을 스스로 메우기로 선택했습니다. JBL은 그 사명을 행동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조직은 누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음악 산업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사운드트랙

다음 세대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
문화의 주역을 키우다

JBL은 단지 훌륭한 사운드를 전달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JBL x Martin
Garrix Music Academy와 JBL
Campus를 통해 음악과 청년 문화,
커뮤니티를 실제로 형성하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전 세계에서 JBL의 접점을
넓히고, 젊은 세대와의 연결을 더욱 깊게
하며, JBL이 지향하는 바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창의성, 목적성,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Image credit: Rick Kern

마틴 개릭스(Martin Garrix)와 함께 만든 JBL Music Academy는 매년 30명의 신예 아티스트를
선발해 암스테르담의 STMPD 스튜디오(STMPD Studios)로 초청합니다. 참가자들은 4일 동안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음악을 쓰고, 녹음하고, 완성도를 높입니다. 퍼포먼스 역량과 아티스트
브랜드를 강화하는 동시에 계약, 퍼블리싱, 스트리밍, 프로모션 실무도 배웁니다.



Image credit: Rick Kern

지속적인 유산 만들기

출발 이후 JBL Music Academy는 글로벌 인재
인큐베이터로서 높은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해마다 확장되어, 이제 브라질, 호주, 북미 출신
크리에이터들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프로듀서, 송라이터들은 이 아카데미를 전문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드문 기회로 신뢰합니다. 이 신뢰는 JBL
브랜드의 문화적 신뢰도를 높이며, 실제 행동으로 문화를
지원하는 브랜드임을 보여줍니다.

캠퍼스에서 JBL을 살아 있게 만들다

JBL Campus 프로그램은 대학과 컬리지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브랜드를 연결합니다. 학생 운동선수, 게이머, 크리에이터,
그리고 문화를 움직이는 인물들을 선발해 JBL을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캠퍼스 앰배서더들은 이벤트를 주최하고,
제품 런칭 콘텐츠를 제작하며, 파티를 기획하고, 주요 청년 문화 이벤트에서 JBL을 대표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JBL 제품을 먼저 체험할 수 있고, 특별 할인, 이벤트 초청, 마케팅 팀의 멘토링까지 받게
됩니다. 그들은 단지 브랜드를 착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6년 JBL Campus 비전

내년 JBL Campus는 한층 더 확장될 예정입니다. 보다
다양한 학생 리더와 크리에이터가 합류하게 되며, 온-
오프라인 캠퍼스 액티베이션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협업,
스토리텔링, 포용에 초점을 둔 새로운 형식도 도입됩니다.
이는 JBL이 단지 제품이 판매되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지는 장소에서 가장 새로운 세대와 연결되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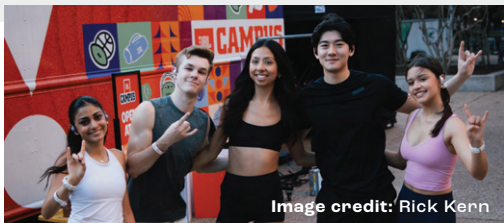


Image credit: Rick Kern

2026년 JBL Music Academy

2026년에도 JBL은 새로운 참가자 그룹을 암스테르담에
초청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직 개발 중이지만 핵심
구조는 유지됩니다. 4일간의 실습 교육, 글로벌 네트워킹,
창작 개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JBL을 신흥 음악 문화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동시에, 스튜디오 밖으로도 확장되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JBL은 이동, 숙박, 프로덕션
시간을 포함해 전체 경험에
투자합니다. 독립 아티스트의
초기 단계에 투자함으로써
JBL은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지원받겠다고 느끼는 브랜드
옹호자를 만들어냅니다.
졸업생들은 JBL이 지원하는
페스티벌과 이벤트 무대에 서며,
이 아카데미를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하는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JBL 내부에서도 중요한가

직원, 파트너, 새로운 팀원들에게 JBL Music Academy와 JBL Campus는 JBL이
행동으로 리드하는 브랜드임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신선한 콘텐츠, 신뢰받는 목소리,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며 실제 임팩트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JBL이 진정성,
창의성, 커뮤니티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JBL은 트렌드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접 그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미래를 위한 사운드트랙 미래를 위한 사운드트랙



미래를 위한 사운드트랙 미래를 위한 사운드트랙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JBL은 단지 스피커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선언을 만들어 왔습니다. 1920년대 초기 Lansing 스피커에서 오늘날의 아이콘에 이르기까지,
JBL의 크리에이티브 유산은 집요한 혁신과 분명한 정체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illegible]

The world's most popular backup group.



Take a look behind the scenes at today's hottest concerts and you'll find some legendary names in sound.

more than any other loudspeakers on the market.

Power capacity, for instance, has

This new magnet design provides extremely high accuracy with minimum speaker distor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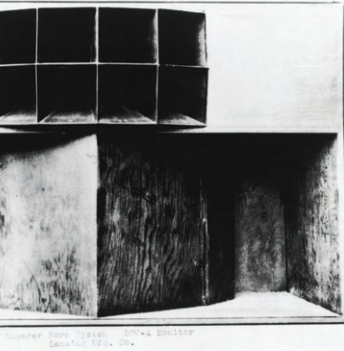
Model #12

ICONIC

THEATRE QUALITY SPEAKER SYSTEMS

Broadest engineers will like the Iconic because, whether in monitor or audience room, each voice and instrument is heard as it really is. In live theatre, Iconic's small theatre and school systems will like the theatre quality with which ICONIC meets their every requirement. For full information about the Iconic System, send representative, literature systems, or speakers ask your dealer or write

LANSING MANUFACTURING CO.
 8800 Midland Ave. Los Angeles, Calif.



Model #12

ICONIC

THEATRE QUALITY SPEAKER SYSTEMS

Broadest engineers will like the Iconic because, whether in monitor or audience room, each voice and instrument is heard as it really is. In live theatre, Iconic's small theatre and school systems will like the theatre quality with which ICONIC meets their every requirement. For full information about the Iconic System, send representative, literature systems, or speakers ask your dealer or write

LANSING MANUFACTURING CO.
 8800 Midland Ave. Los Angeles, Calif.

Lansing Mfg. Co.
 Dept.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scientific
 excellence in 1936

[illegible]

Some like it hot... Some like it cool...

And everyone likes the sound of JBL. That's why you'll find JBL behind the scenes at today's hottest concerts producing and reproducing the music.

Now, JBL offers you a choice of sounds for producing your music with your guitar or keyboard.

The popular JBL M Series loudspeakers take you the traditional JBL "hot" sound with ultra-high fidelity and power handling. The new M Series offers you a cooler sound, even response with power to spare. It's different 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ound of various guitars and amps... hot or cool.

Like the M Series, the M Series speakers feature a cast aluminum frame...not a cheap stamped, heavy duty stamped, and a precision ribbed wire coil...rather than cheaper round wire.

Whether you choose the sound of the S Series or the M Series, you know that over four decades of JBL loudspeaker design, engineering and technology stand behind your choice.

Listen to the sound of the new JBL M Series loudspeakers at your local JBL dealer.

The sound choice is yours.

JBL, Incorporated, 6100 Balboa
Boulevard, P.O. Box 2329
Northridge, California 91321 U.S.A.

The JBL Series is covered by U.S. Pat. 3,522,000.
Pat. # 3,522,000 is covered by U.S. Pat. 3,522,000.

The Sound
of Technology

J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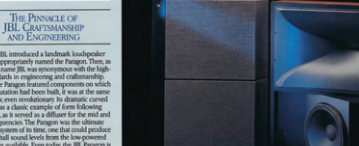
JBL

JBL
ON TOUR



Guests in Concert: The Forum, Los Angeles, October 1-4, 1986
with Simon & Garfunkel. Award-winning reliability and
interchangeable components and exceptional range. JBL® is music.

Showco, Inc.



JBL

**PROJECT
EVEREST**

**THE PRINCIPLE OF
JBL'S QUARTZMASTER
AND ENGINEERING**

In 1975 JBL introduced a landmark loudspeaker system, appropriately named the "Pangea." This was the first time JBL was incorporating what the high-end audio community had been clamoring for. While the Pangea horns—comprised of six 200-watt drivers—were built, it was a year before the new horn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interim JBL was not a client of any of the other loudspeaker manufacturers, as a result of the trust and high reputation The Pangea was given. The horn system was a true engineering achievement. The curved horn allowed sound levels from the low-powered amplifier available. From today the JBL Pangea is a high point and much sought after by audio enthusiasts.

Now a genuine expert from the Pangea, JBL again introduces a loudspeaker system for the home. The new system is a genuine achievement. The combination of a generation of advances in the way ou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pecialized systems, the system will allow the best listening experience to be achieved even possible by the recorded sound. In the first JBL system, the speaker is for domestic

[illegible][illegible][illegible]

40 years ago, color screens
showed in a new dimension
in television viewing. Today
JBL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next dimension, full
color sound. Of course, you've
probably already experienced
it since our surround sound
system can be heard in nearly
70% of all new homes.
Stereo, and now stereo
color.

YOU WATCH TELEVISION IN COLOR.
WHY ARE YOU STILL LISTENING IN BLACK AND WHITE?

enjoying a more natural called
"surround sound" feeling, and
you'll hear the difference in
method. Broadcast listening can
have maximum impact. Even
a kiss will hurt better. Ask your
JBL dealer for a SoundEffects
demonstration. And see how

DO YOUR FILMS SOUND AS THEY LOOK?

While many critics would rather have better music than superb soundtracks, most of these critics realize one fact of life: Unfortunately, the sound of a film is often about as disappointing as today's average movie picture. The new audio technology and sound is now here when they sound best.

The JBL speaker system JBLA can help.

Here's the point: The range and the fidelity of sound is a sound track, a breathtaking experience. And for that, the experience and reliability to live with, and enjoy, is unbeatable.

JBLA can offer an other world sound.

When today's speakers are flat, the JBLA is as high as the sound will go. It's the only speaker that can make the sound of the movie "Jaws" with the excitement JBLA is heard everywhere.

is more than recording, it's the way you hear. JBLA makes every movie sound better, gives them the sound of the future.

One JBLA speaker system is the performance. JBLA gives you the most complete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vailable.

James H. Lansing School, 6000 Riverside Boulevard, New York, N.Y. 10020.

JBL

FIRST TO GET THE PROS.

JBL

MAKE EVERY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집에서 즐기는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이끈 JBL 럭셔리 사운드 혁명



1990년대, JBL은 이미 영화 사운드를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JBL 스피커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라이브 무대, 블록버스터 영화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톱 영화감독, 프로듀서, 음악계 거물들의 집 현관문 앞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스튜디오 시사실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최고의 사운드를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JBL 팀에게 이것은 단지 또 하나의 제품 브리프가 아니었습니다. 사운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그 도전에 응답하며, 지금까지 없었던 수준을 넘어서는 시스템, 즉 궁극의 홈 시네마 경험을 개척할 기회였습니다.

그 불꽃은 곧 JBL Synthesis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초고급 맞춤형 보정 홈시어터 시스템으로, 주거 공간에서 가능한 사운드의 기존 자체를 다시 쓴 제품입니다. 그것은 단지 영화관 경험을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관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JBL 제품 전략 및 기획 수석 디렉터 짐 개럿(Jim Garrett)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전환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전 세계 영화관과 음악 스튜디오에서 사람들을 웃고 울게 만드는 우리의 세계 최고 수준 오디오 기술을 집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죠.”

세계 최초

JBL Synthesis는 세계 최초의 THX 인증 홈 시네마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THX는 영화 시작 전 들리던 인트로 사운드로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그 자체로 최고 수준 오디오 엔지니어링의 보증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JBL Synthesis는 라우드스피커, 서라운드 프로세서, 앰프, 그리고 이를 하나로 엮는 룸 보정 도구까지 아우르는 풀 시스템 통합을 구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JBL은, 모든 홈시어터가 프로페셔널 시사실과 동일한 감정적·정확한·강력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다는 개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스템은 완전히 맞춤형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맞춤 정장에 비유하곤 합니다.” 개럿은 말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공간, 취향, 엔터테인먼트 습관에 맞춰 설계되고, 그다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정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다

이 정도 수준의 개인화는 JBL을 역사상 가장 대담한 주거형 프로젝트들로 이끌었습니다. 벽이 없는 원형 공간, 사방이 유리로 된 로프트, 가족용 다목적 라운지 등. JBL Synthesis는 아심찬 홈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의 골드 스탠더드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설치 사례 가운데 하나가 바로 The One입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개인 주택으로 알려진, 벨에어(Bel Air)의 10만 5천 평방피트 메가 맨션입니다. 볼링장과 나이트클럽까지 갖춘 이 저택에는, 7월에 걸쳐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Dolby Atmos 영화관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JBL Synthesis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맞는 볼륨 레벨을 구현하려면 설계자가 정말 큰 스케일로 가야 했어요. 주거 공간이라기보다 상업 공간 규모에 가까웠죠. 정말 거대했습니다.” 개럿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히 규모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30피트 폭의 스크린부터 좌석 하나하나에 최적화된 맞춤형 오디오 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좌석이 완벽한 재생을 위해 튜닝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스타만을 위한 시사실이 아니라, 실제 프리미어 상영에도 어울릴 법한 공간이었습니다.

감정의 업그레이드

오늘날 JBL Synthesis 시스템의 가격대는 2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할리우드 내부 인사들이 주요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넓은 층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개럿은 이를 페라리를 사는 것에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V12 엔진의 복잡한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알죠. JBL Synthesis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디오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이것이 최고의 경험이라는 사실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JBL은 전용 영화관만이 아니라 다목적 공간을 위한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The One in Bel Air

고객들은 아침에는 스포츠 생중계를 보고, 저녁에는 콘서트를 스트리밍하며, 같은 공간에서 친구들을 초대해 영화의 밤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JBL Synthesis 시스템이 라이브 공연장과 영화관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목적성은 놀라움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데모를 위해 누군가를 좌석에 앉히면 몇 분 안에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집 안에서 이런 수준의 성능이 가능하다는 걸 몰랐던 거죠.” 개럿은 말합니다.

JBL Synthesis가 특별한 이유는 그 엔지니어링에 있습니다. 컴프레션 드라이버와 High-Definition Imaging(HDI) 웨이브가이드를 포함해 수십 년간 축적된 특허 라우드스피커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시스템을 훨씬 뛰어넘는 영화관급 명료함, 제어된 지향성, 자연스러운 다이내믹 레인을 구현합니다. 또한 독자적인 룸 보정 타깃 커브와 인증 시스템 프로그램(Certified Systems Program)을 통해 전용 영화관, 다목적 미디어룸, 독특한 구조의 복잡한 건축 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설치 환경을 정밀하게 튜닝합니다.

이러한 확장성은 JBL Synthesis의 최신 진화에서도 핵심 요소입니다. 2026년 JBL은 보다 넓은 구성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12개의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더 접근성 높은 레퍼런스 시스템부터 타협 없는 플래그십 설치까지, 다양한 방 크기와 성능 수준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듈형 구조는 어떤 형태의 방이든, 어떤 좌석 배치이든 일관된 톤 밸런스와 몰입 정확도를 유지한 채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친밀한 미디어룸부터 대형 프라이빗 시네마에 이르기까지, JBL은 모든 디테일이 아티스트나 감독의 의도에 충실하도록 설계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소파까지

JBL Synthesis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음향 전문 지식을 가진 JBL만이 구축할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음악과 영화를 만드는 도구에서부터, 그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경험하는 개인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JBL의 사운드가 이어집니다.

블록버스터 감독과 스포츠 스타부터 꿈의 집을 짓는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JBL Synthesis는 단지 뛰어난 성능을 넘어 몰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JBL에게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지 스피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럿은 말합니다. “우리는 꿈을 엔지니어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의 공간, 취향, 엔터테인먼트 습관에 맞춰 설계되고, 그 다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정됩니다."

- 짐 개럿

이야기를 들려주는 테스트 장면들

모든 JBL Synthesis 시스템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작되지만, 진짜 마법은 그것이 실제로 재생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럿과 그의 팀은 데모를 음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늘 뮤지컬 클립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The Greatest Showman이나 A Star Is Born 같은 작품이죠.” 이런 장면들은 보컬과 악기, 감정이 어떻게 명료함과 온기를 품은 채 방 전체를 채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다이내믹 레인지와 임팩트를 확인할 때는
다음 장면들을 활용합니다:**

Mission: Impossible – Dead Reckoning
정교한 공간 효과와 빠른 움직임 표현을 테스트하기 위한 장면

Fury
혼란스러운 전투 장면 속 저역의 힘을 확인하기 위한 장면

Sinners
다양한 장르가 섞인 사운드 디자인과 감정적으로 밀도 높은 음악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

Gran Turismo / F1
고속 사운드스케이프와 장대한 스코어를 확인하기 위한 장면

**“중요한 것은 이 순간이 얼마나 몰입감 있고
감정적으로 강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럿은 말합니다. JBL Synthesis는
단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 시네마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서의 기준을 계속 세워가고 있습니다.



듣는 즐거움을 위해 디자인되고, 빛어지다



사운드의 형태 L100의 QUADREX 그릴

알고 계셨나요?

상징적인 폼 그릴은 단지 스타일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아널드 울프의 디자인 팀은 수십 가지 패턴과 밀도를 테스트한 끝에 Quadrex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기능적인 확산체이자 강렬한 그래픽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초기에는 오렌지, 블루,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제공되었고, 이는 인테리어 디자인 안에서도 하나의 상징적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럭셔리 사운드 시스템에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소재
선택, 형태, 음향적 의도는
성능과 존재감을 같은
무게로 형성하며, 스피커가
공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는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모든 JBL 시스템 안에 살아 있는 특성입니다. 소리로 직접 증명되는 장인 정신입니다.

디자인 과정은 소리가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스케치와 형태 연구를 거쳐, 손끝으로 재료를 다듬는 작업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디자이너들은 각 모델을 구성할 때 비례, 음향적 거동, 시각적 조화를 동시에 고려합니다. 어느 하나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엣지, 모든 윤곽, 모든 각도는 의도를 갖고 탄생합니다. 아직 한 음도 재생하기 전이라 해도, 이미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각 모델은 먼저 비례, 캐비닛 볼륨, 음향적 목적을 균형 있게 맞추는 형태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이후 사운드 분산과 공간 안에서의 존재감을 제어할 수 있도록 기하 구조를 정교하게 다듬으며, 인클로저가 서 있는 방식과 연주하는 방식이 동일한 수준으로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웨이브가이드, 즉 사운드를 형성하고 방향을 제어하는 요소들은 모두 사내에서 개발되며, 방 전체에서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측정과 조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소재 선택 역시 기능에서 출발합니다. 천연 우드 베니어는 나뭇결과 밀도 기준으로 선별되고, 하이글로스 마감은 깊이감과 내구성을 위해 여러 차례 레이어링과 테스트를 거칩니다.

모든 핵심 컴포넌트는 내부에서 개발되며, 시스템 전체가 하나의 완결된 유기체처럼 튜닝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개념은 시뮬레이션, 측정, 청취 과정을 거쳐 비로소 완성품이 됩니다.

최신 럭셔리 라인의 진화형인 JBL Summit Series는 JBL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집약한 결과물입니다. 음향적 정밀함,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그리고 음악과의 감정적 연결.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시리즈는 고급 라우드스피커 장인 정신의

숨 막히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오랜 디자인 규율의 현재적 표현입니다. 구조화된 실험, 의도를 담은 형태, 그리고 오직 퍼포먼스를 위해 존재하는 엔지니어링.



사운드의 새로운 세계



하만(HARMAN)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아민 프로머스버거(Armin Prommersberger)가
미리 들려주는 오디오의 다음 시대

사운드를 생각하는 시스템

“오늘날의 오디오 시스템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시스템은 그 방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히 오디오를 향상시키는 수준을 넘어, 오디오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스피커는 지금 재생 중인 콘텐츠, 사용자가 선호하는 볼륨, 자신의 하드웨어를 어느 수준까지 안전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춰 즉시 조정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밀리초 단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그 결과, 콤팩트한 스피커도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듯한 더 큰 사운드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볼륨은 강력하게 느껴지면서도 왜곡은 없고, 내구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은 한계 직전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더 멀리 나아갑니다

“헤드폰은 더 이상 단순히 소음에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소음을 예상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근처 스피커의 볼륨이 곧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헤드폰이 미리 안다고 상상해보세요. 베이스가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노이즈 캔슬링이 먼저 조정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능형 상호운용성(Intelligent Interoperability)의 실제 모습입니다. 기기들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맥락 데이터를 공유하고, 더 매끄럽고 더 몰입감 있는 경험을 위해 서로 협업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지능형 생태계로

미래의 오디오는 연결된 지능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기기들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조율하게 됩니다. 스피커, 헤드폰, TV, 모바일 기기가 맥락 데이터를 공유하며, 끊임 없이 매끄럽고 최적화된 맞춤형 경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누군가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오디오 생태계는 마이크를 연결하고, 가장 강력한 스피커로 사운드를 전송하고, TV에 가사를 동기화합니다. 당신은 노래방 기계를 따로 산 적이 없지만, 당신의 연결된 사운드 환경이 스스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몇 개의 기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기기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함께 작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서비스 레이어로서의 오디오

앞으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오디오가 제품에서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디오는 자동차에서 이어버드로, 다시 거실로 이어지는 환경과 순간 사이를 흐르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환경과 행동에 적응하며, 앱을 열거나 설정을 조정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됩니다. 기술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경험이 전면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마찰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기기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도록요. 대신 기기들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인간 중심 설계

결국 이 새로운 사운드의 세계는 매우 인간적입니다.

JBL은 오디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처리되고, 인지되는지에 대한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음향학, 물리학,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 직관적이고 반응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지 더 큰 사운드나 더 똑똑한 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 없이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으며, 개인에게 맞춰지는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사운드트랙을 만들어온 80년을 지나, JBL의 다음 시대는 지능형 상호운용성, 예측형 성능, 그리고 순간에 적응하는 사운드에 관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몇 개의 기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기기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함께 작동하느냐입니다.”**



Full-scale sound from a small-scale system

Ideally suited to stereophonic reproduction

훌륭한 사운드는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신뢰는 모든 것입니다.

80년 동안 JBL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본래 들려야 할 방식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존재해왔습니다. 무대에서,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음악이 멈춘 뒤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말입니다.

이번 80주년은 사운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즉 아티스트, 엔지니어, 파트너, 그리고 JBL을 믿고 모든 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팬들이 함께 쌓아온 유산을 기념하는 순간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가까이 다가서고, 사운드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의 목소리들이 이미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BL

80년 동안 세상의 목소리를 들려준 JBL.

A woman in a black suit stands with her back to the camera, holding a baton and conducting. She is surrounded by various JBL speakers of different sizes and shapes, some on stands and some on the floor. Three bright spotlights shine down on her from above. The background is dark, and the overall atmosphere is dramatic and artistic. The JBL logo is in the top right corner, and a QR code is in the bottom right corner.

JBL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캔하고 80년 사운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